

경험 중심 EPIC 모델을 통한 청년 목회의 재구성: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와 Test of Faith 제자양육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메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김지영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Ji-Young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RECONSTRUCTING YOUNG ADULT MINISTRY THROUGH AN  
EXPERIENCE-CENTERED EPIC MODEL:**

A CASE STUDY OF HANAVISION CHURCH YOUNG ADULT MINISTRY AND  
TEST OF FAITH DISCIPLESHIP

Ji-Young Kim

Hanavision Church, Incheo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theological and pastoral challenges of young adult ministry in the context of the MZ generatio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Often described as hyper-rational, hyper-individualistic, and hyper-autonomous, this generation is not interpreted as resistant to faith but as responding adaptively to social instability. This dissertation reinterprets these characteristics as new conditions for faith formation rather than obstacles.

The research analyzes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young adult ministry approaches. It engages Leonard Sweet's EPIC theory, which emphasizes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and connected expressions of faith in the postmodern church. EPIC challenges faith models centered on explanation and transmission, highlighting instead embodied and lived belief.

The core of this study is a case analysis of Hanavision Church and its Test of Faith (ToF) discipleship proces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faith among young adults is formed primarily through lived encounters with God within personal struggles rather than through program participation alone. These experiences expand into participation, shared narratives, and communal connec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n “Experience-centered EPIC Pyramid Model,” positioning experience as the starting point of faith formation, supported by participation, narrative, and connection. This model reframes young adult ministry not as a strategy tailored to generational preferences but as a theological structure enabling faith to grow in lived reality.

In conclusion, the crisis of young adult ministry cannot be resolved through new programs alone but requires renewed commitment to faith formation. The experience-centered EPIC model offers a meaningful theological and pastoral direction for both young adult ministry and the future church.

## 국문초록

### 경험 중심 EPIC 모델을 통한 청년 목회의 재구성: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와 Test of Faith 제자양육 사례연구

김지영

하나비전교회, 인천, 대한민국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형성된 MZ 세대 청년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청년목회에 제기하는 신학적·목회적 과제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MZ 세대는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신앙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불확실한 사회 현실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대적 특성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신앙 형성의 새로운 조건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와 MZ 세대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기존 청년목회의 한계와 도전을 분석하였다. 이어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모델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시대 교회가 신앙을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연결(Connected)의 방식으로 드러내야 함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EPIC 모델은 신앙이 설명과 전달의 차원에 머물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신앙 형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 분석과 Test of Faith (ToF) 제자양육 과정을 중심으로, EPIC 모델이 실제 청년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신앙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삶의 문제와 시험 속에서 ‘경험’ 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이 경험이 참여와 이야기, 공동체적 연결로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존 EPIC 모델을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경험 중심 EPIC 피라미드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경험을 신앙 형성의 출발점으로 두고, 참여, 이미지, 연결이 이를 지지하며 확장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청년목회를 세대 맞춤형 전략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신앙이 실제로 형성되는 구조를 재정립하는 신학적 시도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MZ 세대 청년목회의 위기를 새로운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교회가 본래 감당해야 할 신앙 형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제시한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은 청년목회를 넘어, 오늘의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신학적·목회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 목차

감사의 글 .....	ix
I. 서론 .....	1
A. 연구 배경과 문제제기 .....	1
B.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	2
C. 연구 방법 .....	2
D. 논문의 구성 .....	3
II. MZ 세대와 청년 목회의 신학적 과제 .....	4
A. 한국 사회 변화와 MZ 세대의 형성 .....	4
B. MZ 세대의 주요 특징: 초합리·초개인·초자율 .....	6
1. 초합리: 이해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는 세계 .....	6
2. 초개인: 함께 있음보다 안전한 거리둠 .....	7
3. 초자율: 통제 가능한 삶을 향한 갈망 .....	9
4. 생존 전략으로서의 인간상 .....	10
C. 초합리·초개인·초자율 앞에 선 청년 목회의 막막함 .....	11
D. Faith-Oriented Human: 막막함 이후의 신학적 응답 .....	13
III.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 .....	16
A. 레너드 스윗의 시대 인식과 교회에 대한 문제 제기 .....	16
B. EPIC 모델의 구조와 핵심 개념 .....	18
1. 경험(Experiential): 이해보다 경험을 통한 신앙 형성 .....	19
2. 참여(Participatory): 관람자가 아닌 주체로 세워지는 공동체 .....	20

3.	이미지(Image-driven): 글이 아닌 이야기와 상징의 언어	20
4.	연결(Connected): 개인을 넘어서는 관계적 신앙	21
5.	EPIC 은 방법론이 아닌 인간 형성의 틀	22
C.	EPIC 모델과 MZ 세대 청년 목회의 적용 가능성	23
1.	초합리 청년과 경험 중심의 신앙	23
2.	초개인 청년과 참여 중심의 공동체	24
3.	초자율 청년과 이야기 중심의 신앙 언어	25
4.	혼자 믿는 신앙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으로	25
5.	EPIC 은 청년을 바꾸는 전략이 아니다	26
IV.	<b>EPIC 모델의 청년 목회 적용 사례: 하나비전교회 청년부</b>	27
A.	사례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법	27
1.	사례 연구의 목적과 신학적 의도	27
2.	사례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8
B.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의 실제	29
1.	청년부 리빌딩의 흐름과 방향	30
2.	주요 사역 프로그램	31
3.	사역의 변화가 나타난 결과	44
C.	사역의 중심 구조로서의 Test of Faith 제자양육 과정	45
1.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역의 중심 구조’로서의 제자양육	45
2.	ToF 의 개념과 구조	46
3.	경험(Experiential): 시험을 경험의 출발점으로 삼는 구조	51
4.	참여(Participatory): 시험 가운데 혼자 두지 않는 참여 구조	53

5. 이미지(Image-driven): 신앙을 이야기로 기억하게 하는 구조 .	54
6. 연결(Connected): 나의 시험에서 타인의 삶으로 확장되는 공동체 구조 .....	56
7. Test of Faith 제자양육과 신앙 형성의 구조 .....	58
D. 사례 연구의 신학적 함의 .....	59
<b>V. 경험 중심 EPIC 모델의 재구성과 청년 목회적 제언 .....</b>	<b>61</b>
A. 사례를 통해 본 기존 EPIC 모델의 재구성 필요성 .....	61
B. 경험을 중심으로 한 EPIC 피라미드 모델의 제안 .....	62
1. 경험(Experiential)을 꼭짓점으로 설정하는 이유 .....	63
2. 참여·이미지·연결로 확장되는 하단 구조 .....	65
3. 경험 중심 EPIC 모델과 Faith-Oriented Human 의 형성 .....	66
4. 경험 중심 EPIC 모델의 신학적 의미 .....	68
C. 경험 중심 EPIC 모델이 제시하는 청년 목회의 실제적 제언 .....	69
1. ‘설명하는 신앙’ 에서 ‘경험되는 신앙’ 으로의 전환 .....	69
2. 참여를 요구하기보다 참여가 일어나는 구조 만들기 .....	70
3.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신앙 언어를 회복하기 .....	70
4. 관계 유지를 넘어 책임 있는 연결로 나아가기 .....	71
5. 경험을 중심에 둘 때 청년 목회의 방향은 달라진다 .....	72
<b>VI. 결론 .....</b>	<b>73</b>
A. 연구 내용의 요약 .....	73
B.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 .....	74
C. 신앙 형성과 Faith-Oriented Human 의 형성 .....	75

D. 실천신학적 · 목회적 기여 .....	75
E.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76
F. 종합 결론 .....	76
참고문헌 .....	78
부록 .....	81

##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동행 속에서 이루어진 여정이었다. 먼저 이 긴 학업과 사역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본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강의와 학문적 통찰로 연구의 시야와 방향을 넓혀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과 조병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의 기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실제적인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정진욱 교수님께도 감사를 전한다.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지도는 본 연구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부족한 종을 세워 주시고 사역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비전교회 원로목사 김중복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하나비전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담임목사 송석민 목사님과, 현재 신평교회에서 사역의 새로운 여정을 열어 주신 담임목사 최재훈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세 분 목회자의 신뢰와 격려는 사역과 연구를 병행하는 여정 가운데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현장이 되어 주었고,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그들의 삶과 고백, 성장의 과정은 본 연구의 가장 소중한 내용이 되었으며,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배우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이 모든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나래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함께 Test of Faith 사역을 만들어가며 수많은 도전과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나 삶의 기쁨이 되어 준 사랑하는 쌍둥이 자녀 유하와 시하에게도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며, 학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은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해 준 모든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 연구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2026 년 5 월

김지영

## I. 서론

### A.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한국 교회 청년 목회는 오랜 기간 ‘신앙 전수’와 ‘제도 참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MZ 세대로 통칭되는 세대의 등장은 기존 청년 목회의 구조적 전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보다 의미를, 교리 전달보다 경험을, 대리적 신앙 참여보다 주체적 신앙 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신앙 형성 방식 전반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 목회는 여전히 설교 중심, 프로그램 중심, 전달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청년 이탈과 신앙 지속성의 약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sup>1</sup> 특히 MZ 세대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일정한 소속감은 경험할 수 있으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실제로 경험하고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의 EPIC 모델은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연결(Connected)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앙 형성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EPIC 모델이 한국 교회 청년 목회 현장에서

---

<sup>1</sup> 정원희, “청년이 떠나는 교회, 시대 읽고 응답해야,” 「기독신문」, 2025년 6월 30일.

어떤 구조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신앙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 B.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MZ 세대 청년 목회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목회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해 경험을 중심으로 한 EPIC 모델을 재구성하여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년 목회를 세대 맞춤형 전략이 아니라, 신앙 형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구조의 문제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MZ 세대의 주요 특성은 기존 청년 목회에 어떠한 신학적·목회적 도전을 제기하는가? 둘째,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어떤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가? 셋째, EPIC 모델은 실제 청년 목회 현장 사례를 통해 어떠한 구조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그 재구성은 청년 목회에 어떤 신학적·목회적 함의를 갖는가?

## C.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MZ 세대 관련 사회문화 연구와 청년 목회에 관한 신학적 논의를 검토하고,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하나비전교회 청년부를 사례로 선정하여, 제자양육 구조와 사역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EPIC

모델이 현장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 D.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은 MZ 세대의 특성과 이들이 청년 목회에 제기하는 신학적 과제를 분석한다. 제3장은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은 EPIC 모델을 적용한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를 분석한다. 제5장은 사례 분석을 통해 EPIC 모델을 재구성하고 청년 목회적 제언을 제시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다.

## II. MZ 세대와 청년 목회의 신학적 과제

### A. 한국 사회 변화와 MZ 세대의 형성

한국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고, 경제 규모와 사회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피로와 불안이 함께 누적되어 왔다. 허태균은 한국 사회를 외형적 성공과 내면적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로 분석하며,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삶의 만족 사이에 구조적인 간극이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한다<sup>2</sup>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청년 세대에게 더욱 선명하게 체감된다.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언제든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허태균은 반복된 사회적 재난과 위기 사건들이 국가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감각을 내면화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sup>3</sup>

경제 구조의 변화 역시 이러한 불안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정희원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유난히 강하게 호출되는 이유를, 실제 기회의 평등이 약화된 상황에서 나타난 보상 심리로 설명한다. 청년

---

<sup>2</sup> 허태균, 『어쩌다 한국인』 (서울: 중앙북스, 2015), 11-15.

<sup>3</sup> Ibid., 175-176.

세대가 경험하는 박탈감과 억울함은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치열한 경쟁, 자산 격차의 확대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광연선은 팬데믹 이후 자산 가격의 급등과 계층 이동 가능성의 축소가 MZ 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과 동시에 극심한 소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오늘날의 MZ 세대를 “노력만으로는 삶의 전망을 그리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조기 번아웃에 노출된 세대”로 규정한다<sup>5</sup>

그렇다고 해서 MZ 세대를 단순히 무기력하거나 포기한 세대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전정환은 이들이 기존의 조직과 가족 구조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관계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MZ 세대를 경계에서 있는 존재로 바라보며,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실험하는 주체로 조명한다<sup>6</sup>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MZ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환경을 살아왔다. 임홍택은 한국 사회에서 ‘MZ 세대’라는 용어가 단순한 연령 집단이 아니라,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사고 방식과 생활 전략을 내면화한 세대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이들이 생존을 위해 합리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관계와 헌신조차 계산의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sup>7</sup>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안, 공정에 대한 집착, 불투명한 미래 전망,

<sup>4</sup>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파주: 창비, 2022), 18-24.

<sup>5</sup> 광연선, 『번아웃 세대』 (서울: 스리체어스, 2022), 42-44.

<sup>6</sup> 전정환, 『밀레니얼의 반격』 (파주: 더퀘스트, 2019), 49-50.

<sup>7</sup> 임홍택, 『2000년생이 온다』 (서울: 십일프로, 2023), 87-95.

그리고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변화는 MZ 세대를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했다. 이들은 선택의 자유가 많아진 세대라기보다, 선택의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온 세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합리성, 개인성, 자율성은 가치라기보다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작동해 왔다.

#### B. MZ 세대의 주요 특징: 초합리·초개인·초자율

앞 절에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MZ 세대를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해 왔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실패가 곧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세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MZ 세대는 생존을 위해 특정한 태도와 사고 방식을 내면화하였고, 그 결과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이라는 특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개념들은 임홍택이 제시한 MZ 세대 이해의 핵심 틀로, 오늘날 청년 세대의 삶의 방식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sup>8</sup>

##### 1. 초합리: 이해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는 세계

초합리는 단순히 이성적이거나 계획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확실성과 실패의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 사회 속에서 형성된, 극도로 계산된 합리성이다. 임홍택은 오늘날 MZ 세대가 감정이나 관계보다 논리적 정합성과

---

<sup>8</sup> Ibid., 161.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모든 선택에 앞서 ‘납득 가능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sup>9</sup>

이러한 초합리성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직업 선택, 인간관계, 결혼과 출산, 심지어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비용과 효용의 계산 대상이 된다. 김정희원은 공정 담론이 확산된 배경을 분석하며, 청년들이 합리성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사회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개인은 끊임없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sup>10</sup>

이러한 조건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철희는 인구 변화로 인해 청년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안에서 젊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선택의 무게가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한 번의 선택 실패가 다음 기회로 쉽게 전환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며, 청년들로 하여금 모든 결정을 더욱 신중하고 계산적으로 만들게 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한다<sup>11</sup>

이 같은 초합리성은 생존 전략으로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만 제한하는 한계를 낳는다. 번아웃 세대를 분석한 광연선은 효율과 성과 중심의 삶이 지속될수록 정서적 소진과 허무가 축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합리성이 오히려 삶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넣는 역설을 지적한다<sup>12</sup>

## 2. 초개인: 함께 있음보다 안전한 거리둠

<sup>9</sup> Ibid., 164-167.

<sup>10</sup>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30-35.

<sup>11</sup> 이철희,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파주: 위즈덤하우스, 2024), 160-162.

<sup>12</sup> 광연선, 『번아웃 세대』, 52-56.

MZ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초개인이다. 이는 공동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개인주의와는 구별된다. 초개인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되 그 안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태도에 가깝다. 임홍택은 MZ 세대가 관계를 감정 중심이 아니라 계약과 조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한다<sup>13</sup>

이혜민은 청년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계 안에서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을 관리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태도는 최근 Z세대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청년들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5</sup>

초개인은 청년 세대가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실패가 개인에게 너무 큰 정서적·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자기 보호 전략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조귀동은 사회적 안전망과 집단적 완충 장치가 약화될수록,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연대의 공간이 아니라 잠재적 부담과 위험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초개인이 공동체를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불안정한 계층 구조 속에서 개인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관계 전략임을

<sup>13</sup> 임홍택, 『2000년생이 온다』, 200-204.

<sup>14</sup> 이혜민, 『요즘 것들의 사생활 먹고사니즘』 (서울: 구백킬로미터, 2010), 15-44.

<sup>15</sup> 대학내일20대연구소, 『Z세대 트렌드 2025』 (파주: 위즈덤하우스, 2024), 75-76.

설명해 준다. 이는 오늘날 청년들이 관계를 맺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학적 배경을 제공한다<sup>16</sup>

### 3. 초자율: 통제 가능한 삶을 향한 갈망

세 번째 특징인 초자율은 자유에 대한 단순한 선호가 아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최소한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 두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 임홍택은 MZ 세대가 시간, 공간, 노동 방식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안정된 소속보다 통제 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sup>17</sup>

김수연은 직장 내 청년들의 경험을 분석하며, 오늘날의 청년들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요구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8</sup> 초자율은 이러한 경험 속에서 형성된 자기 통제의 욕망이자, 스스로 붕괴되지 않기 위한 방어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통제의 감각은 이론적 분석뿐 아니라 청년 개인의 체험적 언어에서도 확인된다. 이용규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서 “인생의 모든 날이 내 맘 같을 리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회고하며, 삶을 스스로 붙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드러낸다<sup>19</sup>

그러나 초자율 역시 한계를 지닌다. 자율이 절대화될수록 타인과의 의존

<sup>16</sup>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서울: 생각의힘, 2020), 55-87.

<sup>17</sup> 임홍택, 『2000년생이 온다』, 205-209.

<sup>18</sup> 김수연, 『이제 막 복직한 김과장에게』 (서울: 은위드, 2023), 208-210.

<sup>19</sup> 이용규, 『뚝배기를 닦아 뿌렁클을 사다』 (서울: 줍살한알, 2022), 96.

관계는 약화되고, 실패와 취약함을 함께 감당할 공간은 사라진다. 광연선은 자율성과 자기 관리가 극대화될수록, 개인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욱 고립된 소진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고 분석한다<sup>20</sup>

#### 4. 생존 전략으로서의 인간상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MZ 세대의 초합리·초개인·초자율은 단순한 세대 성향이나 기질적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안정과 경쟁,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에 가깝다. 이 특징들은 청년들이 무언가를 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위험을 혼자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사회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MZ 세대의 인간상은 교회와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한 교계 보도에서는 MZ 세대 당사자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MZ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의 신앙 관습과 자신의 삶의 방식 사이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 이라고 분석한다<sup>21</sup>

이러한 인식은 학술 연구에서도 반복하여 확인된다. 신승범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많은 기독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로 “신앙이 삶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채 관습과 형식으로만 남아 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현실과

<sup>20</sup> 광연선, 『번아웃 세대』, 48-52.

<sup>21</sup> 이대웅, “MZ가 말하는 ‘MZ 세대가 교회 떠나는 이유’,” 『크리스천투데이』, 2024년 11월21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sup>22</sup>

이귀연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생존과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병행하기 어려우며, 이는 번아웃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sup>23</sup>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발생한다. 이러한 생존 전략의 인간상이 반복될수록, 신앙과 공동체, 헌신과 의존을 전제로 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교회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 C. 초합리·초개인·초자율 앞에 선 청년 목회의 막막함

앞 절에서 살펴본 초합리·초개인·초자율은 오늘날 MZ 세대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이 세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합리성을 극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개인의 경계를 강화하며,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율성을 붙들고 살아간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세대적 성향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 조건 속에서 형성된 생존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목회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이 이해 이전의 믿음에서 시작되며, 공동체적 헌신과 상호 의존 속에서 자라간다고 가르쳐 왔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였고, 공동체 참여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sup>22</sup> 신승범, “기독교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021), 286-290.

<sup>23</sup> 이귀연, “청년교회봉사자의 번아웃 경험에 관한 단일사례연구: 기독교 상담적 제안,” 『복음과 상담』 30(1) (2022), 73.

초합리·초개인·초자율의 언어로 삶을 구성해 온 청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전제는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이해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삶의 태도 속에서, 믿음은 설명을 요구받는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동체 앞에서, 헌신은 미뤄야 할 위험 요소가 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자신을 내어맡기는 신앙의 언어는, 자유와 자율을 생존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경험해 온 이들에게 낯설고 불안한 요청으로 다가온다. 그 결과 청년 목회는 한편으로는 “이 세대의 언어로 다시 말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긴장이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설교를 더 쉽게 바꾸고, 프로그램을 더 세련되게 조정하는 차원으로는 이 막막함이 해소되지 않는다. MZ 세대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수록, 기존의 청년 목회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나 전략의 부족이 아니라, 교회가 전제해 온 ‘인간 이해’ 자체가 질문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논문의 방향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MZ 세대에 대한 최신 연구 자료와 분석들을 따라가다 보니,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럴수록 교회가 과연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기업과 사회는 이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목적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지만, 교회는 그 전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MZ 세대는 스스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sup>24</sup>

<sup>24</sup> 전석재 외, 『2026 한국교회 Z세대 트렌드』 (서울: 다음세대연구소, 2025), 173.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목회의 막막함은 단순한 연구의 난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왔다. 이 세대 앞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어떤 인간상을 제시할 수 있는가?

#### D. Faith-Oriented Human: 막막함 이후의 신학적 응답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본 연구는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MZ 세대의 초합리·초개인·초자율이라는 특징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세대가 특별히 냉소적이거나 신앙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붙들기에는 삶의 조건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쥐고 있는 합리성과 개인성, 자율성은 신앙을 거부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에 가깝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끝에, 본 연구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교회는 기업처럼 청년들을 설득하고 관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업은 보상과 효율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동력 위에 서 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모이고, 신앙으로 인해 시간과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공동체다. 이 점에서 교회는 오늘날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와 구조적으로 닮은 공동체는 오히려 ‘기업’이 아니라 ‘팬클럽’에 가깝다. 팬클럽은 경제적 보상 없이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시간과 돈, 에너지를 기꺼이 쏟아붓는 공동체다. 이는 MZ 세대가 헌신할 줄 모르는 세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제는 헌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그 헌신을 감당할 만큼 진실한 대상이 되고 있는가"는 질문이다.

이 지점에서, 초합리·초개인·초자율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초합리는 이해와 효율을 중심에 둔 인간상을 보여주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이해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부른다. 초개인은 자기 보호를 최우선에 두지만,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을 요청한다. 초자율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강화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초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앙적 인간 이해를 “신앙적 인간(Faith-Oriented Human)”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이성을 거부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이며, 개인성을 부정하는 인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인간이고, 자율성을 포기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결국 MZ 세대의 현실을 끝까지 정직하게 마주한 결과, 본 연구는 역설적으로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청년 목회는 더 이상 세대를 교회의 틀에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신앙적 인간’을 지향하는 교회는, 신앙을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세워가는 공동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다음 장에서는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EPIC 모델은 ‘신앙적 인간’이라는 인간상이 목회 현장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형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신학적 도구가 되며, MZ 세대 청년 목회를 위한 구체적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 Ⅲ.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

#### A. 레너드 스윗의 시대 인식과 교회에 대한 문제 제기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현대 문화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며, 포스트모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전해야 하는지를 질문해 온 기독교 미래학자이다. 그는 교회의 위기를 단순한 세대 변화나 문화 적응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신앙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접근한다. 본 연구가 레너드 스윗의 사상에 주목하는 이유도, 그의 논의가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논하기 이전에 신앙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다시 묻게 하기 때문이다.

레너드 스윗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신앙의 본질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신앙이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그는 현대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에 집중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신앙이 실제 삶을 형성하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교회는 많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sup>25</sup>

스윗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가’ 보다는, 그 신앙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와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묻는다. 그는 현대 사회가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방향과

---

<sup>25</sup>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65.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 중심의 신앙 전달 방식은 자연스럽게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sup>26</sup>. 그 결과 교회는 신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수는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에서 보다 현실적인 문화 분석으로 이어진다. 스윗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카페나 브랜드 공간에서 더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끼는 현상을 단순히 소비문화의 영향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그 이유를, 이러한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는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27</sup>. 반대로 많은 교회는 여전히 일방적인 전달 구조 속에서 관람 중심의 신앙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오늘의 사람들에게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

그는 “책을 더 읽기 전에 스타벅스 잔을 읽어보라”는 도발적인 제안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문자와 설명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한다. 현대인은 더 이상 글과 논리만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으며, 이미지와 공간, 경험과 상징을 통해 의미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교회 역시 성경 본문만을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전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sup>28</sup>.

『태블릿에서 테이블로』에서 스윗은 이러한 문제를 관계와 공동체의 약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명한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결해 주는

<sup>26</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79-80.

<sup>27</sup>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김영래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27.

<sup>28</sup> Ibid., 21-24.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삶을 나누는 깊은 만남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윗에게 식탁은 단순한 교제의 상징이 아니라, 신앙이 삶 속에서 형성되고 전해지는 중요한 자리이다. 성경 속에서 식탁은 언제나 말씀과 관계, 기억이 함께 만들어지는 공간이었으며, 교회 또한 이러한 신앙의 공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9</sup>

이러한 시대 인식 속에서 스윗은 교회가 단순히 시대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변화는 신앙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다시 삶 속에서 경험되도록 돕는 방향 전환이다. 즉 교회의 과제는 진리를 더 많이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제기는 이후 스윗이 제시하는 EPIC 모델의 출발점이 되며, 경험·참여·이미지·연결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체화된다<sup>30</sup>

## B. EPIC 모델의 구조와 핵심 개념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분석하며, 그 대안으로 EPIC이라는 교회 이해를 제시한다. EPIC은 Experiential(경험적), Participatory(참여적), Image-driven(이미지 지향적), Connected(연결된 공동체)의 머리글자를 딴 개념으로, 이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예배 형식을 설명하기 위한 슬로건이 아니라 신앙이 인간 안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구조적 개념이다. 스윗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단순히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sup>29</sup> 레너드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25), 103-109.

<sup>30</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1-64.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의 문제로 보았으며, EPIC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되었다<sup>31</sup>

#### 1. 경험적 교회(Experiential): 이해보다 경험을 통한 신앙 형성

스윗은 현대인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설명 중심보다는 경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신앙의 내용을 먼저 이해한 뒤에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감정적 흥분이나 일시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지가 삶 속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스윗은 교회가 설명을 지나치게 강조할수록, 신앙은 오히려 머리 속 지식에 머무르게 된다고 지적한다<sup>32</sup>

그는 경험적 신앙이란 신앙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삶 속으로 스며들도록 돕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현대인은 “왜 믿어야 하는가”보다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로 무엇을 하게 만드는가”를 묻고 있으며, 경험적 교회는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경험은 신앙의 대체물이 아니라, 신앙이 뿌리내리는 통로라 할 수 있다.

이은경도 청년들이 신앙을 지식이나 규범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의미 경험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sup>33</sup>

<sup>31</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09-111.

<sup>32</sup> Ibid., 118-121.

<sup>33</sup> 이은경, “멀티-빌리버스(multi-believers) 시대의 미닝아웃(Meaning out) - ESG를 통한 신앙역량 강화,” 『신학과 실천』 82 (2022), 884.

## 2. 참여적 교회(Participatory): 관람자가 아닌 주체로 세워지는 공동체

EPIC의 두 번째 요소인 참여적 교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로 서는 구조를 의미한다. 스윗은 많은 교회가 의도치 않게 예배와 사역을 ‘보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설교는 듣는 것이고, 예배는 관찰하는 것이며, 사역은 소수의 리더가 수행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다수의 성도는 참여 대신 관람에 익숙해졌다는 것이다<sup>34</sup>

스윗에게 참여란 단순히 봉사 인력을 늘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이 개인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신학적 이해에 기반한다. 참여적 교회에서는 신앙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살아내는 것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참여 구조 속에서 성도는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신앙 여정의 동반자로 자리하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청년들은 교회를 교육·사역의 객체가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주체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sup>35</sup>

## 3. 이미지 지향적 교회(Image-driven): 글이 아닌 이야기와 상징의 언어

스윗은 현대 사회가 문자 중심에서 이미지와 이야기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sup>34</sup>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41-43.

<sup>35</sup> 최승연, “MZ 세대가 원하는 건 ‘신앙공동체’, 교회 참여 허용해야,” 『크리스천데일리』, 2022년 3월 31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4003> (최종접속 2026년 2월 9일).

분석한다. 그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긴 설명이나 교리적 정의보다,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본다. 이 변화는 단순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 방식 자체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설명한다<sup>36</sup>

이미지 지향적 교회란 시각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를 뜻하지 않는다. 스윗이 말하는 이미지는 상징, 은유, 이야기와 같은 총체적 의미 전달 방식을 포함한다. 예수께서 비유와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셨듯이, 이미지 중심의 신앙 언어는 신앙의 깊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맥락 속에 더 깊이 스며들게 한다. 이때 이미지는 설명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미를 여는 문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교회 청년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세대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Z세대는 제도 종교에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 자체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교리적 설명보다는 삶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언어와 경험을 통해 영성을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민형도 기독교청년들이 신앙을 교리적 설명보다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7</sup>

#### 4. 연결된 공동체(Connected): 개인을 넘어서는 관계적 신앙

EPIC의 마지막 요소는 연결된 공동체이다. 스윗은 현대인이 개인화된 사회

<sup>36</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4-137.

<sup>37</sup> 이민형, “기독교청년의 신앙 : 한국교회의 이미지, 경험, 기대에 대하여,” 『신학과 실천』 88 (2024), 875.

속에서 깊은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립은 신앙의 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는 교회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이는 집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삶을 실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8</sup>

스윗에게 연결은 정보의 공유나 온라인 소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적 연결을 뜻한다. 특히 그는 식탁의 이미지를 통해, 신앙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교회가 다시 이러한 관계의 구조를 회복할 때, 신앙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교회 현장에서도 식탁과 같은 일상적 관계의 회복이 신앙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 준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sup>39</sup>

## 5. EPIC은 방법론이 아닌 인간 형성의 틀

이처럼 EPIC 모델은 예배 형식이나 사역 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 지침이 아니라, 신앙이 인간 안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경험을 통해 신앙이 시작되고, 참여 속에서 신앙이 자라며,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 의미가 형성되고, 공동체적 연결 속에서 신앙이 지속된다는 것이 스윗의 핵심 주장이다<sup>40</sup>

<sup>38</sup> 스윗, 『태블릿에서 데이블로』, 58-61.

<sup>39</sup> 침례신문사, “밥상머리 WITH - 식사로 마음 열고 말씀 나누는 공동체,” 『baptistnews』, 2024년 6월 12일, <https://www.baptistnews.co.kr/mobile/article.html?no=17745> (최종접속 2026년 2월 14일).

<sup>40</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50-153.

이러한 EPIC의 구조는 본 연구가 앞서 제시한 ‘신앙적 인간’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EPIC은 단순히 MZ 세대의 특성에 맞추기 위한 교회 전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사람을 신앙적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 회복해야 할 신앙 형성의 언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EPIC 구조가 MZ 세대 청년 목회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C. EPIC 모델과 MZ 세대 청년 목회의 적용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EPIC 모델은 교회의 형식이나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를 다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MZ 세대 청년 목회를 고민할 때 이 점은 특히 중요하다. 이 세대는 초합리·초개인·초자율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 불안정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태도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EPIC 모델은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문제로 단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신앙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 1. 초합리 청년과 경험 중심의 신앙

MZ 세대는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헌신이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선택은 위험하다고 느낀다. 이런 태도는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믿음은 설명이 충분히 주어져야 선택 가능한 것이 되기 쉽다. 이때 교회가 신앙을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정확히 정리하려 할수록,

오히려 청년들은 신앙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EPIC 모델이 말하는 ‘경험’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윗이 강조하는 경험은 감정적인 체험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이 실제 삶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직접 겪는 과정이다. 청년들은 신앙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움직이기보다, 신앙을 살아보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경험 중심의 구조 안에서 신앙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sup>41</sup>

## 2. 초개인 청년과 참여 중심의 공동체

MZ 세대는 개인의 경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경계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만큼만 관계 맺기를 원한다. 이런 태도는 교회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교회 역시 청년을 수동적인 참여자로 머무르게 하기도 한다.

EPIC 모델의 참여적 구조는 이러한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 참여는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과 책임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다. 청년이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할 때 신앙은 조금씩 자기 것이 된다. 스윗이 지적하듯, 관람 중심의 교회는 편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sup>42</sup> 참여를 통해 청년은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신앙의 주체로 인식하게 된다.

<sup>41</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18-121.

<sup>42</sup>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41-43.

### 3. 초자유 청년과 이야기 중심의 신앙 언어

MZ 세대는 자신의 시간과 선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는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제력을 잃는 순간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신앙은 종종 ‘강요’ 나 ‘요구’ 로 느껴지기 쉽다.

이때 EPIC 모델의 이미지 지향적 구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와 이야기는 명령하거나 설득하지 않으면서도, 의미를 전달한다. 청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의 자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스윗이 말하는 이미지는 시각적 장치가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해하도록 돕는 언어이다<sup>43</sup>.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년은 통제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신을 서서히 열게 된다.

### 4. 혼자 믿는 신앙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으로

EPIC의 마지막 요소인 연결된 공동체는 오늘의 청년 목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년들은 늘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관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신앙 역시 개인적인 선택이나 감정에 머물기 쉽다.

---

<sup>43</sup>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34-137.

『태블릿에서 테이블로』에서 스윗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함께 앉는 자리’의 회복을 강조한다. 테이블은 신앙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간이다. 그 자리에서 말씀은 설명되지 않아도 전해지고, 신앙은 훈련되지 않아도 스며든다<sup>44</sup>.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청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신앙은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 5. EPIC은 청년을 바꾸는 전략이 아니다

EPIC 모델은 MZ 세대의 특징을 고치거나 제거하려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대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현실 안에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는 틀이다. EPIC은 청년 목회를 위한 유행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신앙적 인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PIC은 MZ 세대에 맞추는 방법이 아니라, 교회가 본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는 신학적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실제 청년 목회 현장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sup>44</sup>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58-61.

## IV. EPIC 모델의 청년 목회 적용 사례: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 A. 사례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법

#### 1. 사례 연구의 목적과 신학적 의도

앞 장에서는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그에 대한 신학적 문제 제기를 살펴보았다. 특히 EPIC 모델은 MZ 세대의 초합리·초개인·초자율이라는 특성을 교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질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청년 목회를 위한 하나의 기법이나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보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논의가 실제 목회 현장과 분리된 채 이론에 머문다면, EPIC 모델 역시 또 하나의 이상적 모델로 남을 위험이 있다. 신앙은 언제나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EPIC 모델이 제시하는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의 구조가 실제 청년 목회 현장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 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론을 현장 속으로 가져오기 위한 시도이다.

본 장에서는 하나비전교회 청년부를 사례로 삼아, EPIC 모델이 청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례 연구는 특정 교회를

성공 모델로 제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EPIC 모델이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목회적 선택과 실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사례는 ‘정답’이 아니라, EPIC 모델이 현실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 장면이다.

특히 이 사례 연구는 청년들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신앙의 의미가 어떤 언어와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적 연결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EPIC 모델이 추구하는 ‘신앙적 인간’의 형성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장은 앞서 제시한 이론이 시대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청년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 2. 사례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하나비전교회 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자료는 참여 관찰 기록, Test of Faith 제자양육 과정 중 작성된 개인 묵상 노트와 응답 보고서, 밴드 게시글 및 온라인 기록, 사역 문서, 심방 및 상담 메모, 그리고 비공식적 인터뷰 자료 등을 포함한다. 자료는 본 연구가 사역 현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었다.

자료 분석은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기본 분석 틀로 삼되, 경험 중심으로 재구성한 분석 구조를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의

요소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변화의 패턴과 전환 지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공동체의 담당 목회자로서 연구 현장 내부자라는 위치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상호 비교·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개인적 인상에 의존한 해석을 지양하고 구체적 기록과 반복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B.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의 실제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가진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다. 청년부에는 약 120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었고, 외형적으로 볼 때 공동체는 안정되어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청년들의 신앙이 삶의 자리까지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다.

여러 사역과 모임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청년 개인의 삶의 문제와 신앙이 실제로 만나는 구조는 분명하지 않았다. 사역자는 이 문제를 단순히 프로그램의 수나 참여율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사역자는 청년사역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역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검증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질문하며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청년부 사역은 처음부터 빠른 성과보다 시간을 들여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 1. 청년부 리빌딩의 흐름과 방향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은 단기간의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약 3년에 걸쳐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은 뚜렷한 단계로 구분되기보다, 공동체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리빌딩 이전의 청년부는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 구조 속에서 참여 저조와 신앙의 형식화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다. 사역자는 청년들과의 관계 형성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연초 아웃팅과 대심방 등의 사역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현실과 고민을 직접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프로그램 중심 구조에서 관계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공동체가 점차 안정되면서, 청년부의 구조와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자양육과 리더십 체계가 정비되었고, 청년들은 단순한 참여자의 위치를 넘어 공동체를 함께 책임지는 구성원으로 서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Test of Faith (ToF)<sup>45</sup>가 도입되면서,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는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

<sup>45</sup> 앞으로 소개될 제자양육의 명칭. Test of Faith 제자양육으로 'ToF' , 'Test of Faith' , '토프' 로 혼재되어 사용되나 모두 Test of Faith 제자양육을 지칭함.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험을 통한 참여, 참여를 통한 이야기의 형성, 그리고 이야기의 축적을 통한 관계적 연결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부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알고 함께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로 재구성되었다. 다양한 사역들은 이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삶의 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참여 저조-형식화된 신앙” 구조에서, “경험-참여-이야기-연결-신앙 형성”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리빌딩의 흐름과 구조적 특징은 표 4-1에 요약되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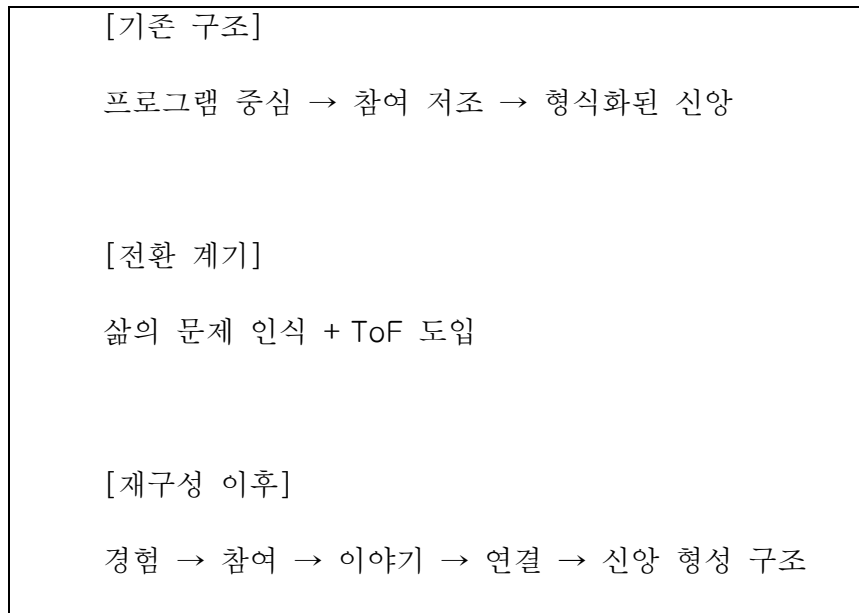


표 4-1.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리빌딩 과정

## 2. 주요 사역 프로그램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의 사역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되기보다, 여러

사역들이 서로 연결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a. 연초 아웃팅과 대심방

하나비전 청년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초가 청년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1월 첫 주 출석을 2월 겨울수련회까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한 해 전체 사역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새해에 신앙적 결심을 하지만, 이 결심이 적절한 만남과 연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간헐적으로 교회를 찾는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년부는 연초 사역의 중심 전략으로 ‘만남’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1월 첫 주에는 새로운 속회 편성을 발표하고, 첫 속회 모임에서 속장들이 속원들을 위해 준비한 편지를 전달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청년들이 편성된 속회에 첫 주부터 참여하도록 강조하였으며, 이후 진행될 아웃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아직 서로가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첫 주 속회 모임은 관계를 시작하는 약속의 자리로 기능하였다.

이어 1월 둘째 주에는 속회별 아웃팅을 진행하였다. 예배 후 각 속회가 함께 외부 활동을 하도록 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속회 안에 머물게 되었고, 아웃팅 중 담당 목회자와의 대심방 일정을 함께 조율하였다. 이때 모든 구성원의 일정을 확인하여 대심방 날짜를 확정함으로써, 대심방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예배 참여가 암묵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1월과 2월에는 대심방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새내기 청년들의 경우 속장과 담당 목회자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만남을 가졌으며, 기존 속회는 겨울수련회 이전까지 전체 속원을 대상으로 한 대심방을 진행하였다. 담당 목회자는 주중과 주말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삶의 상황을 살피고 신앙을 돌보았으며, 이러한 만남의 흐름 속에서 청년부는 겨울수련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초 아웃팅과 대심방 사역은 단순한 친교 프로그램을 넘어,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 실제로 연결되고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기능하였다. 특히 연초라는 결정적인 시기에 집중된 만남의 설계는 이후 한 해 청년부 사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였다.

#### b. 겨울수련회: 미리 은혜받는 구조

하나비전 청년부의 수련회 설계는 NCD 청년사역 가풍현 목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수련회의 핵심 가치를 “수련회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왔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기대는 때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비전 청년부는 수련회 자체를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수련회 이전에 이미 청년들이 은혜의 과정을 지나도록 사역을 설계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수련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자리로 기능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련회 주제에 맞는 성경 한 권을 정하여 전 청년이 함께 읽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사랑’을 주제로 한 수련회에서는 호세아서를 함께 읽었고, ‘세상을 향한 신앙’을 주제로 한 수련회에서는

다니엘서를 함께 읽었다. 청년들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해진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실 마음을 미리 경험하도록 안내받았다. 담당 사역자는 해당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고, 청년들은 주중에 말씀을 읽으며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였다. 수련회 한 달 전부터 주제와 연결된 설교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점부터 수련회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 속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겨울수련회 ‘루즈타임’ (2019년 2월 15-17일, 하나비전교회)이다.

이 수련회의 핵심 목표는, 정해진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하고 견디기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인간적으로 제한하는 현대 기독교 문화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수동적 신앙 태도를 넘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영적 삶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요일 일정은 ‘개인 영성훈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현대 예배 문화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람의 편의에 맞추어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에서 5시간이 넘는 예배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례는, 지루함을 넘어서는 영적 도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수련회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찾는 성숙한 신앙으로의 도전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금요일의 개인 영성훈련은 선한목자교회 교역자 수련회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다. 이 수련회는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각자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정형화된 일정 중심의 수련회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구조였다.

하나비전 청년부의 청년들은 이미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양육 과정에 매 기수마다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토요기도회는 소수 인원에서 시작하여 매주 40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큐티팀, 독서팀, 그림그리기팀, ToF팀 등 다양한 신앙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근력을 기르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금요일 일정은 몇 가지 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여는 예배·저녁 나눔·금요철야를 제외한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출입은 제한하고 숙박과 간식은 제공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식사는 점심과 저녁 두 차례 제공하였다. 또한 성경읽기방, 중보기도방, 찬양방, 기독교영화방, 남녀 수면방, 간식방 등 일곱 개의 공간을 운영하여 개인 활동을 지원하였다. 모든 청년은 하루 한 시간씩 담당 공간을 맡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일과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토요일에는 ‘12시간 예배’를 중심으로 일정이 운영되었다. 이 예배는 예수전도단(YWAM)의 24시간 예배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으며, 생각과 열심, 집중, 그리고 기존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예배의 시간으로 이해되었다. 참여자들은 깊은 감동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영적 갈망을 고백하기도 하였다.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지역일수록 예배 시간이 길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본 예배는 초기 신앙의 전통과도 연결된다. 중국의 장편 찬송가 사례는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제한 없이 드렸던 초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현대 한국 교회의 예배는 편의 중심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본 수련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수련회의 12시간 예배는 제약을 넘어선 예배, 지루함을 넘어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기도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지속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의 흐름을 배우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경험하도록 하는 시도였다.

#### c. 여름수련회: 봉사를 통해 경험하는 신앙

하나비전교회 청년부는 겨울에는 영성수련회, 여름에는 봉사수련회로 진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전까지의 여름수련회는 전체 청년부가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나, 연구자가 부임한 첫 해부터 전국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봉사를 수행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여름수련회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장기간의 준비와 훈련을 요구하는 사역이 되었다.

전국 7개 지역으로 나누어 봉사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섭외하고, 각 팀을 훈련시키며, 봉사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비는 이른 시기인 3월부터 시작되었다. 수련회 일정 또한 한 번에 진행할 수 없어 2-3주에 걸쳐 주말마다 나누어 진행되었다. 담당 사역자는 전국을 이동하며 총 일곱 차례의 저녁 집회를 인도하였고, 하루 이동 거리만도 평균 400km에 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각 수련회 현장마다 깊은 은혜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름 봉사수련회는 소규모 팀 단위로 준비되었고, 많은 봉사와 실무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속회원 전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여름수련회는 임원이나 일부 헌신된 인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이 함께 준비하는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름수련회는 연중 청년부 참여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되었으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여름 봉사수련회의 목적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을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전교회와 젊은이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 4:18)라는 말씀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기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여름수련회를 단순한 집회 중심 수련회가 아니라 봉사수련회로 기획한다. 둘째, 교회가 지원하는 16개 비전교회를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한다. 셋째, 셀별로 비전교회의 실제 필요에 맞는 봉사를 준비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준비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4월에는 각 비전교회에 연락하여 봉사가 필요한 영역을 조사하고, 요청 내용을 정리하여 셀별로 교회를 매칭하였다. 각 셀은 담당 교회의 요청에 따라 봉사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5-6월에는 봉사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내용을 배우고 연습하였다. 예를 들어 벽화 봉사의 경우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벽화 작업을 배우고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역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신앙의 훈련을 경험하였다. 7-8월에는 셀별로 봉사 일정을 확정하고 시작 집회를 드린 후 전국 각지로 흩어져 봉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후 간증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었다.

이러한 여름 봉사수련회는 단순한 단기봉사 활동이 아니라, 청년들이 준비의 과정부터 실행과 나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신앙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사역이었다. 특히 공동체 전체가 함께 준비하고 감당하는 구조는 청년들에게 신앙이 개인의 결단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의 겨울과 여름 수련회는 각각 영성과 봉사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모두 ToF(Test of Faith) 제자양육의 흐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ToF 제자양육은 삶에 주어진 현실과 과제를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훈련이며, 수련회는 이러한 신앙 형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다. 겨울수련회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의 근력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여름 봉사수련회는 그 신앙을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두 수련회는 모두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ToF 제자양육이 지향하는 경험 중심 신앙을 강화하는 보조 구조로 기능한다.

#### d. 제자양육 과정: ‘예수님의 사람’ 과 ‘Test of Faith’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의 제자양육은 ‘예수님의 사람’ 교재와 ‘ToF(Test of Faith)’ 활동을 중심으로 병행 운영되었다. 첫 제자양육 오리엔테이션 당시 청년들은 기존 신앙교육이 형식적으로 느껴졌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보다

참여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방식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 중심의 제자훈련 교재로, 말씀 묵상과 적용, 소그룹 나눔을 통해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 및 신앙의 생활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신앙을 단순한 지식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sup>46</sup>

제자양육은 소그룹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매 기수마다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함에 따라 2~3개의 조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각 조에서는 매주 짝을 정하여 말씀 묵상과 적용 내용을 바탕으로 삶과 신앙을 나누는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자양육은 상·하반기 연 2회(3월, 9월) 진행되었으며, 주일 예배와 속회 모임 이후 오후 시간에 연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들이 예배, 공동체 모임, 제자양육을 분절된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 흐름으로 경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제자양육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점차 신앙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삶의 문제를 신앙의 자리로 가져와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sup>46</sup> 유기성, 『예수님의 사람』(서울: 위드지저스, 2020년). 본 교재는 십자가 중심의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동행을 훈련하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예를 들어 제2단원 1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에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을 중심 본문으로 삼아,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의미를 다룬다. 해당 단원은 신앙적 자기 점검 질문(“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등)을 제시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성찰하도록 유도한다. 이어 저자의 개인적 신앙 경험과 사례를 통해 형식적 신앙과 인격적 신앙의 차이를 설명하며, 예수의 임재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요셉의 유혹 거절 사례, 목회자의 영적 체험, 일상적 윤리 문제 등을 통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의 핵심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각 단원은 말씀 해설-신앙 성찰-삶의 적용-질문 나눔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가 십자가 신앙을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체화하도록 돕는 훈련 교재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ToF(Test of Faith) 활동이 병행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ToF는 이러한 기초적 제자훈련을 삶의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확장한 훈련 구조로, 청년들이 자신의 현실을 신앙의 시험(Test)으로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응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ToF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은 이후 장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 e. 전도 사역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의 전도 사역은 ‘성공적인 전도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전도를 향한 신앙적 태도와 실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역 초기 공동체는 전도를 부담스럽게 인식하였으며, 전도에 대한 경험과 훈련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본 사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전도의 성과보다도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EPIC의 가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청년부는 전도를 단순한 과제나 의무로 제시하기보다, 관계 형성, 공동 기도, 반복적 참여, 실제적 실천의 과정을 통해 신앙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신앙이 경험(Experiential)에서 출발하여 참여(Participatory)와 관계(Connected)를 거쳐 삶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려는 목회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하나비전교회 청년부는 전도 사역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먼저 VIP 작정기도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초기에는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었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격려를

통해 점차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도 작정을 부담이 아닌 신앙적 헌신의 행위로 인식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전도축제마다 수백 명의 VIP 명단을 놓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와 함께 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전도 소그룹을 운영하며,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전도 방식을 시도하였다. 청년들은 전도 대상자를 일상적 모임에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신앙에 대한 대화와 증보기도를 통해 복음이 점진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 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연락과 소규모 돌봄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는 전도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앙적 통로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시도였다. 더 나아가 유명한 초청 집회와 노방 전도를 병행하여, 전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였다.

전도의 흐름이 정착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담당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노방 전도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였고, 이러한 실제적 참여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전도팀이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정기적인 노방 전도 사역이 공동체의 주요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사역 초기 진단 결과, 청년들은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가까웠다. 이에 따라 복음 제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배 순서 가운데 ‘1분 복음’을 포함시켜 공동체 전체가 반복적으로 복음을 고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훈련은 청년들이 복음을 언어화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현장 전도 실습을 통해 실제적 적용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전도 사역의 흐름은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보다, 전도를 통해 신앙이 삶의 자리로 확장되는 경험을 공동체적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이는 EPIC 모델이 목회 현장 안에서 완성된 모델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반복적 실천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f. 장애선교주일 아웃팅

하나비전교회 청년부는 장애선교주일을 맞아,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 일상을 나누는 아웃팅 사역을 운영하였다. 공동체 안에는 경미한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속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며,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청년들은 비전부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선교주일 아웃팅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통합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본 사역은 예배 이후 각 속회가 비전부 청년과 짝을 이루어 하루를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화 관람, 식사, 대화, 카페 방문 등 일상적 활동을 함께하며, 참여자들은 장애청년을 ‘돌봄의 대상’이나 ‘사역의 객체’로 인식하기보다, 동일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경험하도록 안내받았다.

이러한 아웃팅 사역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교육 중심의 접근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가치를 체화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신앙이 교회 내 훈련과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삶 곁에 머무르며 관계를 형성하는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사역을 통해 청년들은 환대와 연대, 공감과 책임이라는 신앙적 가치를 일상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으며,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확장되었다.

#### g. 청년회장 선출 과정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에서 청년회장은 공동체 운영과 사역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더십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별도의 사역자 팀 없이 담당 사역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청년회장의 역할은 공동체의 분위기와 영적 흐름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하나비전교회 청년부는 청년회장을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방향성을 함께 분별하고 감당하는 동역자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청년회장 선출은 능력이나 조직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신앙적 성숙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진행된다. 공동체는 특정 개인의 판단이나 의지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지향하며, 담당 사역자는 개인적 판단이나 임원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계하였다.

회장 선출 절차는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총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추천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접수하며, 이후 공식 후보 발표를 거쳐 투표 이전에 일정 기간의 영적 분별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형식적 준비 절차가 아니라, 리더십을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기능한다.

특히 이 분별 과정에는 ToF(Test of Faith) 제자양육 구조를 간소화한 형태가 적용된다. 회장 후보들은 후보로 지명된 현실을 신앙적 과제로 인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말씀 묵상, 기도, 자기 성찰, 기록 훈련을 반복하며 자신의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도록 안내받는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은 리더십을 개인적 성취나 명예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소명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분별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들의 태도와 신앙적 고백에는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회장직 수행 자체보다,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는 선출 이전에 후보자들이 먼저 신앙적 성찰과 순종의 경험을 하도록 돕고, 선출 결과에 대해서도 신앙적 수용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은 회장 선출 구조는 리더십을 기술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리더십 자체를 신앙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목회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 전반에 흐르는 경험 중심 신앙 형성 구조가 공동체의 리더십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 3. 사역의 변화가 나타난 결과

이러한 사역의 흐름 속에서 하나비전교회 청년부는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청년부 예배의 참여 인원은 약 120명에서 200명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단순한 숫자의 변화뿐 아니라 공동체의 분위기와 참여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청년들은 예배와 사역을 소비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자발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였으며,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신뢰와 안정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프로그램 하나의 성과라기보다, 관계 형성과 구조 정비, 그리고 지속적인 사역이 누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의 사례는 청년사역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공동체의 삶과 신앙의 구조를 함께 다루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 C. 사역의 중심 구조로서의 Test of Faith 제자양육 과정

#### 1.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역의 중심 구조’로서의 제자양육

앞 절에서 살펴본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의 사역에는 여러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었다. 연초 아웃팅과 대심방, 수련회, 전도축제, 그리고 리더십 선출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역들은 각각 나름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역들만 나열해서는 청년부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변화의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가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하나로 묶고 있었던 중심 구조에 있었다.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의 중심에는 Test of Faith 제자양육 과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ToF는 여러 사역 중 하나로 선택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오히려 청년부 사역 전반의 방향과 흐름을 정리해 주는 기본 틀로 기능하였다. 다른 사역들은 ToF와 분리되어 진행되기보다, 이 제자양육 구조 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보완되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 점에서 ToF는 일반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 흔히 제자훈련은 정해진 내용을 일정 기간 배우는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ToF는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가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묻는 구조를 가진다. ToF는 지식을 전달하는 훈련이라기보다,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 제자양육 과정이다.

특히 ToF는 청년들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문제와 시험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로 인해 제자양육은 교회 안의 한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의 일상과 선택의 순간까지 이어진다. 제자양육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루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또한 ToF는 청년부 사역의 여러 장면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배와 모임, 사역을 결정하는 자리,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ToF의 언어와 질문 방식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신앙 언어가 형성되고, 청년들은 각자의 상황을 이 언어 안에서 나누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ToF 제자양육은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의 한 부분이라기보다, 사역 전체를 떠받치는 중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역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자양육 구조가 공동체의 신앙 이해와 삶의 선택을 계속해서 정렬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 제자양육 구조의 핵심인 ToF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구조와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해 왔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ToF의 개념과 구조

ToF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나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ToF는 특정 교재를 이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와 선택의 순간을 제자양육의 장으로 삼는 과정 중심의 훈련 구조이다.

ToF의 특징은 신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위를 통해 삶 속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행 구조는 다음 표 4-5와 같은 반복 가능한 다섯 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2. ToF의 실행 구조

이 구조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제자양육 현장에서는 문제·말씀·기도·기간·기록이라는 다섯 요소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ToF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요소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oF의 시작은 공지나 모집을 통해 일괄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ToF는 리더와 훈련 대상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관계적 만남에서 출발한다. 훈련 대상자의 삶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시험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제-말씀-기도-기간-기록’이라는 다섯 요소를 함께 정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 다섯 요소는 ToF 과정 전체를 떠받치는 최소 단위이며, 이후 모든 훈련은 이 틀 안에서 진행된다.

#### a. ToF의 시작: 다섯 실행 요소의 설정

먼저 ‘문제(problem)’를 설정한다. 여기서 문제란 단순한 어려움이나 감정 상태가 아니라, 훈련 대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신앙적 시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자양육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이 문제는 리더가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 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언어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문제는 추상적 고민이 아니라, ToF 기간 동안 집중하여 다룰 신앙의 과제로 명확해진다.

다음으로 문제를 다룰 ‘말씀(word)’의 범위를 정한다. ToF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전제 위에서 있으나,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훈련 대상자의 영적 상황과 문제의 성격에 보다 적합한 성경 본문이나 성경 한 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설정한다. 이는 말씀을 ‘과제로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어 ‘기도(prayer)’의 방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도는 막연한 권면이 아니라, 매일 실천 가능한 시간과 형태로 설정되며,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기도는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을 조정하는 훈련으로 기능한다.

또한 ‘기간(period)’을 설정함으로써 ToF는 삶의 특정 상황에 집중하는 훈련이 된다. 기간은 훈련 대상자의 상황과 일정에 맞추어 정해지며, 이는 ToF가 비현실적인 영성 훈련이 아니라 현실의 시간 안에서 작동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record)’의 방식을 정한다. 훈련 대상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은 마음, 선택의 과정과 이후의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신앙 경험을 정리한다. 기록은 ToF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이후 성찰과 나눔의 기초 자료가 된다.

#### b. ToF의 진행: 다섯 단계의 반복과 공동체로의 확장

앞에서 설정한 다섯 요소를 바탕으로 ToF는 실제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훈련 대상자는 자신의 삶에 나타난 문제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 문제를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이렇게 분별된 방향은 구체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이어지며, 이 모든 과정은 기록을 통해 정리된다.

이 다섯 단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기록과 성찰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 인식으로 이어지며, ToF는 이러한 흐름을 반복하는 순환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ToF는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훈련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 전반에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제자양육의 기본 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ToF의 순환은 개인의 신앙 경험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ToF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훈련 대상자는 자신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는 데 익숙해질 뿐 아니라, 점차 다른 사람의 삶에 나타난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전에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타인의 삶 속에 있는 시험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ToF에서 기록은 개인의 체험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돕는다. 훈련 대상자는 기록을 통해 자신이 어떤 문제를 경험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을 받았으며,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차분히 돌아보게 된다. 필요할 경우 이러한 기록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며, 다른 이들의 분별과 기도를 함께 받는 통로가 된다.

이때 공동체는 문제의 답을 대신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내려주는 집단이 아니다. 공동체는 각자의 경험을 말씀과 기도의 틀 안에서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앙 경험은 혼자만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기억되는 신앙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훈련 대상자는 점차 자신이 경험한 ToF의 구조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때 리더십은 직책을 맡거나 역할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리더십은 삶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의 구조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결국 ToF는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제자양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작동한다. 개인의 경험은 기록을 통해 정리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며, 다시 다른 사람의 삶을 돕는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ToF는 신앙을 일회적인 훈련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복되고 확장되는 제자양육 과정으로 자리 잡는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 제자양육 구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의 신앙을 형성해 왔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ToF가 삶의 시험을 신앙 경험의 출발점으로 삼는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 3. 경험(Experiential): 시험을 경험의 출발점으로 삼는 구조

Test of Faith (ToF) 제자양육 과정은 신앙을 가르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 대신 각 사람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문제와 시험에서 출발한다. ToF는 신앙을 배우기 전에 먼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를 묻게 한다. 이 질문은 신앙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sup>47</sup>

ToF에서 말하는 ‘시험’은 실패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교재는 시험을 통해 삶의 방향과 선택을 다시 바라보도록 이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불안, 갈등, 상처, 반복되는 문제들을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험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계기로 재해석된다<sup>48</sup> 이때 신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

<sup>47</sup> 김지영, 『Test of Faith 1권』 (미출판 교재, 인천: 하나비전교회, 2021), 10-31.

<sup>48</sup> Ibid., 40-63.

ToF의 초기 단원들은 삶의 근본적인 고민과 인생의 목적을 반복해서 다룬다. 이는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기 위한 구성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여러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도록 돕기 위한 구조이다. 질문이 반복될수록 참여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점차 삶 전체를 신앙의 언어로 해석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sup>49</sup>

이러한 경험은 일회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ToF는 경험을 ‘느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도록 설계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시험 앞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는 새로운 태도를 배우게 된다. 경험은 곧 삶의 태도로 확장된다.

또한 ToF의 경험 구조는 특정 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반 이후 단원에서도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신앙의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며, 성경 해석과 실제 적용을 통해 경험은 더욱 구체화된다<sup>50</sup> 이는 ToF가 경험을 하나의 단계로 소비하지 않고, 제자양육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토대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EPIC 모델이 말하는 ‘Experiential’의 의미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여기서 경험은 감각적 자극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ToF는 신앙을 먼저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보다, 살아보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도록 돕는다.

결국 ToF 제자양육에서 경험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삶의 시험을 외면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는 이 구조는, 청년들이 자신의

<sup>49</sup> Ibid., 66-97.

<sup>50</sup> 김지영, 『Test of Faith 2권』 (미출판 교재, 인천: 하나비전교회, 2021), 10-35.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실천적 신앙 형성의 토대를 이룬다.

#### 4. 참여(Participatory): 시험 가운데 혼자 두지 않는 참여 구조

ToF 제자양육에서 말하는 참여는 흔히 떠올리는 봉사 활동이나 사역 참여와는 다르다. ToF는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의 삶에 실제로 찾아온 ‘시험’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불러오도록 설계된 구조를 가진다. 신앙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ToF는 개인의 삶에 존재하는 문제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시험을 진지하게 마주하다 보면, 곧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ToF는 참여를 요청한다. 참여는 누군가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필요로 발생한다<sup>51</sup>

ToF가 강조하는 참여의 핵심은 ‘함께 한다’는 데 있다. 이때의 ‘함께함’은 단순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분별하는 관계를 말한다. 교재는 신앙을 혼자 해석하거나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안내하며, 삶의 선택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도록 이끈다.

이러한 참여 구조는 단계적으로 깊어진다. 1권에서는 자신의 삶을 신앙과

<sup>51</sup> 김지영, 『Test of Faith 1권』, 100-125.

연결해 말하도록 돕고, 2권으로 갈수록 실제 사례와 실천을 통해 삶의 시험을 공동체의 자리로 가져오게 한다<sup>52</sup> 참여자는 점점 신앙의 관찰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된다.

또한 ToF는 참여를 일회적인 모임으로 끝내지 않는다. ‘10주 양육과 2주 실습’이라는 구조는 신앙이 말로만 이해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sup>53</sup>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의 삶을 지켜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실천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는 곧 신앙을 삶 속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

이러한 참여 방식은 EPIC 모델이 말하는 참여적 교회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여기서 참여란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는 구조이다. ToF는 참여자를 수동적인 학습자나 소비자로 남겨두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주체로 세운다.

결국 ToF에서 참여는 경험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이다. 삶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혼자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된다. 참여는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요청되는 신앙의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MZ 세대에게도, 신앙이 삶과 분리되지 않은 실제적인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5. 이미지(Image-driven): 신앙을 이야기로 기억하게 하는 구조

<sup>52</sup> 김지영, 『Test of Faith 2권』, 46-83.

<sup>53</sup> 김지영, 『Test of Faith 1권』, 5.

ToF 제자양육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신앙을 개념이나 설명으로 전달하기보다, 이야기와 기록을 통해 기억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ToF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삶의 문제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와 선택의 과정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로 보여주려는 구조를 가진다.

ToF의 초기 단원들은 삶의 고민과 인생의 목적을 다루면서, 참여자 각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하도록 돕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와 선택을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삶의 흐름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때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 고백이 아니라, 신앙이 삶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sup>54</sup>

특히 ToF는 삶의 시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중요한 신앙 자원으로 사용한다. 시험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기록은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며 신앙의 기억으로 축적된다. 기록된 이야기는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방식은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태도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oF는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남긴다. 참여자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신앙을 강요가 아닌 공감 가능한 현실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ToF에서 이미지는 시각적 자료나 상징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서

---

<sup>54</sup> 김지영, 『Test of Faith 2권』, 72-76.

이미지란, 삶 속에서 반복해서 떠올릴 수 있는 신앙의 장면을 의미한다. 기록된 이야기, 나누어진 간증, 함께 기억하는 선택의 순간들은 참여자들의 삶 속에 신앙의 이미지를 남긴다. 이 이미지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다시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때 신앙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는 EPIC 모델이 말하는 Image-driven Church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스윗이 말하는 이미지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미를 오래 붙잡게 하는 방식이다. ToF 역시 신앙을 설명으로 남기지 않고, 이야기로 기억되게 함으로써 삶의 선택 순간마다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신앙의 언어를 제공한다.

결국 ToF에서 이야기와 기록은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과 참여를 삶 속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삶의 시험을 통해 경험한 신앙은, 이야기로 남겨질 때 비로소 기억이 되고, 기억은 다시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이미지 중심의 구조는 신앙을 일시적인 감정이나 결단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로 형성되게 한다.

## 6. 연결(Connected): 나의 시험에서 타인의 삶으로 확장되는 공동체 구조

ToF 제자양육의 마지막 단계는 개인의 삶에서 시작된 신앙 경험이 공동체적 삶으로 확장되는 지점이다. 앞선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이야기로 기억하게 된다. ToF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신앙이 다른 이의 삶을 향해 열리도록 이끈다.

ToF가 말하는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시험을 통해 신앙을 경험한

이후, 점차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하는 시험을 보게 된다. 이때 공동체는 위로만 건네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된다.

이 과정에서 ToF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동의나 감정적 공감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은 상대방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서도록 돕는 책임 있는 관계로 이해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이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동행하며, 때로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sup>55</sup>

특히 ToF의 후반부 단원들은 이러한 확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개인의 시험을 다루던 과정은 점차 사역과 선교,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을 감당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는 신앙이 개인의 내적 평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을 돌보는 존재로 성장한다.

이러한 공동체 구조는 EPIC 모델이 말하는 Connected Community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연결은 단순한 친밀감이나 소속감이 아니라, 삶을 함께 감당하는 관계의 깊이를 의미한다. ToF는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지 않고, 신앙을 통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이끈다.

결국 ToF 제자양육에서 연결은 과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개인의 시험을 통해 형성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그 공동체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다른 이의 시험을 품게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앙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삶의 방식이자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

---

<sup>55</sup> 김지영, 『Test of Faith 1권』, 122-124.

## 7. Test of Faith 제자양육과 신앙 형성의 구조

본 절에서는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의 사역 중심에 자리한 Test of Faith (ToF) 제자양육 과정을 EPIC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ToF가 단순한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이 삶 속에서 형성되도록 설계된 구조적 여정임이 드러났다.

ToF는 신앙의 출발점을 교리 이해나 헌신의 요구에서 찾지 않는다. 대신 각 개인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시험과 문제를 신앙 경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며, 곧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참여를 요청한다. 참여는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삶의 시험을 함께 분별해야 할 필요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신앙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경험과 참여는 이야기와 기록을 통해 기억으로 고정된다. ToF는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로 남김으로써 신앙이 현실의 언어로 전달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개인의 간증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 기억으로 축적되며, 다시 다음 선택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ToF는 개인의 신앙 형성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의 삶을 향한 책임적 관계로 확장된다. 공동체는 위로만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시험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관계로 이해된다. 이로써 신앙은 개인의 내적 확신을 넘어 삶의 방식이자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ToF 제자양육의 구조는 레너드 스윗이 말하는 EPIC 모델이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 청년 목회 현장 안에서 구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ToF는 MZ 세대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 ‘신앙적 인간’이 형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다.

#### D. 사례 연구의 신학적 함의

본 장에서 살펴본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는 특정한 사역 방식을 ‘성공 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 이 사례의 의미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에 있지 않고, 청년 목회가 어떤 구조 위에서 형성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본 사례는 그대로 모방해야 할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EPIC 모델이 실제 목회 현장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은 외형적으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있지 않았다. 청년부의 변화는 MZ 세대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사역을 조정한 결과라기보다, 신앙이 삶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세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청년들의 초합리성·초개인성·초자율성을 ‘고려한 전략’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신앙이 경험되고, 선택되며, 관계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비전교회 사례는 EPIC 모델이 단순한 문화 해석이나 방법론에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와 이야기(Image-driven), 연결된 공동체(Connected)는 각각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신앙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였다. 특히 Test of Faith (ToF) 제자양육은 이 네 요소를 삶의 자리에서 통합하는 중심 구조로 기능하며, 청년들이 신앙을 ‘배우는 대상’ 이 아니라 ‘살아내는 현실’ 로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는 청년 목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례는 오늘날 청년 목회가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청년을 교회에 남게 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서 신앙이 실제로 형성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청년 목회를 특정 세대에 맞춘 사역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교회가 본래 감당해야 할 신앙 형성의 책임으로 다시 돌려놓는다.

## V. 경험 중심 EPIC 모델의 재구성과 청년 목회적 제언

### A. 사례를 통해 본 기존 EPIC 모델의 재구성 필요성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은 포스트모던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통찰로 평가받아 왔다.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연결(Connected)이라는 네 요소는, 신앙이 더 이상 설명과 전달의 문제로만 다루어질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주목해야 할 핵심 가치들을 잘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PIC 모델은 오늘날 청년 목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 틀로 기능한다.

그러나 하나비전교회 청년부의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EPIC 모델이 제시하는 네 요소가 현장에서는 동일한 비중으로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론적으로는 병렬적으로 제시된 네 요소가, 실제 청년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는 특정한 순서와 중심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EPIC 모델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이 이론이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될 때 재구성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MZ 세대 청년들의 신앙 형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작동한 요소는 ‘참여’ 나 ‘연결’ 이 아니었다. 또한 이미지나 상징 역시 출발점이 되기보다는, 신앙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의미를 갖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된

신앙이 있었다. 청년들이 신앙을 다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점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나 일회적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해석이 바뀌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며, 신앙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을 다루는 힘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경험이 선행될 때에야 비로소 참여는 자발적인 응답으로 나타났고, 이야기는 공동체의 신앙 언어로 축적되었으며, 관계와 연결은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는 공동체적 책임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는 EPIC의 네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례는, 이 네 요소가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배열될 때 실제로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문제는 EPIC을 적용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EPIC이 어떤 구조로 재해석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 B. 경험을 중심으로 한 EPIC 피라미드 모델의 제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는 EPIC 모델의 네 요소가 현장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은 모두 중요하지만, 실제 청년들의 신앙 형성 과정에서는 이 요소들이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존의 병렬적 EPIC 이해를 재구성하여, 경험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EPIC 피라미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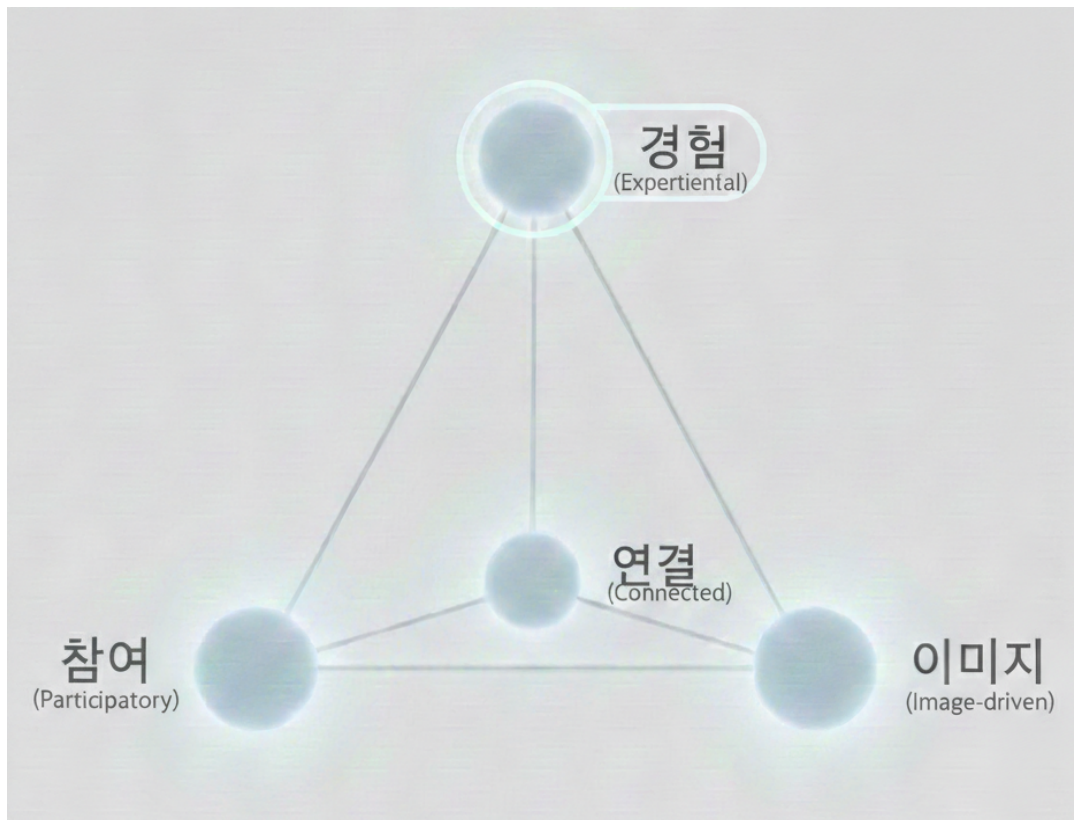


그림 5-1. 경험을 중심으로 한 EPIC 피라미드 모델

### 1. 경험(Experiential)을 꼭짓점으로 설정하는 이유

이 피라미드 모델에서 가장 위에 위치하는 요소는 ‘경험’이다. 이는 네 요소 중 하나를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에서 청년들의 신앙 형성 과정 가운데 실제로 가장 먼저 작동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사례 분석 결과, 청년들은 참여나 관계를 통해 신앙에 들어오기보다, 삶의 문제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다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MZ 세대 청년들에게 신앙은 충분한 설명 이후에 형성되기보다,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 속에서

경험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개념적 이해 이전에 삶을 통해 신앙의 실재성을 확인하게 하는 통로로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험(Experience)’은 삶에 찾아온 ‘선택지’, 곧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순간을 의미하며, 신앙을 호출하는 하나님의 ‘연락’으로 기능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경험은 신앙 형성 과정 안에서 다음의 세 층위로 구조화될 수 있다.

첫째, 선택의 사건 경험(Choice-bearing Life Event)은 삶의 문제, 실패, 관계의 갈등, 진로와 직업의 고민 등 개인에게 크고 작은 방향 결정을 요구하는 선택의 순간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둘째, 신앙 해석(Faith Interpretation)은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 공동체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경험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셋째, 형성 결과(Spiritual Formation)는 해석된 경험이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선택의 방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일시적 결단이나 감정적 반응을 넘어, 신앙이 삶의 구조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삼층적 경험 구조는 경험을 감정 중심 신앙으로 축소하는 오해를 방지하며, 경험이 신앙 형성의 핵심 통로로 기능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경험은 곧 참여와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적 연결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며, EPIC의 다른 요소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ToF 제자양육은 이러한 경험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돕는 훈련

체계이다. ToF는 청년들의 삶에 존재하는 시험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도록 인도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변화와 신앙 형성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경험이 선행될 때,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를 다루는 현실적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 2. 참여 · 이미지 · 연결로 확장되는 하단 구조

경험을 꼭짓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의 하단에는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연결(Connected)이 위치한다. 이 세 요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경험을 통해 활성화되며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를 이룬다.

먼저 참여는 경험된 신앙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나타난다.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에서 청년들은 사역에 ‘동원’ 되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더 깊이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경험을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는 부담이 아니라, 신앙을 살아내는 통로로 인식되었다.

이미지와 이야기는 경험을 공동체 안에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 ToF 과정에서 기록된 이야기와 간증은 단순한 개인의 체험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공동체적 증언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교회의 신앙 언어와 상징을 형성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미지와 이야기는 신앙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연결은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다. 경험을 통해 신앙이 실체가 되고,

참여와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공동체 안의 관계는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 책임의 관계로 발전한다. 연결은 억지로 유지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함께 삶을 감당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적 실재이다. ToF의 궁극적 지향은 개인의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시험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다.

### 3. 경험 중심 EPIC 모델과 Faith-Oriented Human의 형성

경험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EPIC 피라미드 모델은 단순한 사역 구조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특정한 신앙적 인간형의 형성을 지향한다. 본 연구는 이 구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Faith-Oriented Human’이라는 신앙적 인간상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신앙적 인간’은 삶의 현실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주체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재구성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교회 활동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신앙을 삶의 중심 원리로 살아내는 인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신앙적 전환의 결과로 형성되는 ‘신앙적 인간’은 하나님 나라적 삶의 특성을 삶의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확인되는 실제적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신앙적 인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인식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삶의 성공과 실패, 인정과 배제의 경험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환경이나 성과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한다. 이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 담대함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 ‘신앙적 인간’은 고난과 시험의 순간을 신앙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는 기회로 받아들인다. 그는 어려움 앞에서 즉각적인 회피나 체념으로 반응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며, 고난 속에서도 영적 평안과 내적 기쁨을 유지하는 태도를 형성한다.

셋째, ‘신앙적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신앙을 개인적 위안이나 내적 만족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과 책임의 실천으로 확장한다. 이는 ToF 과정에서 나타난 직장, 학업, 관계 현장의 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넷째, ‘신앙적 인간’은 주 안에 매이는 삶을 억압이나 손해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참된 자유의 근거로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을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은혜로 받아들이며, 자율성과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합한다.

다섯째, ‘신앙적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실패, 회복의 과정을 신앙의 언어로 재해석하며, 이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증언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서사는 개인의 신앙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앙 형성에도 중요한 자원이 된다.

여섯째, ‘신앙적 인간’은 신앙을 일시적 열심이나 특정 시기의 결단으로 제한하지 않고, 평생에 걸친 형성의 여정으로 이해한다. 그는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해 가는 존재로서, 지속적인 회개와 성찰의 삶을 살아간다.

이와 같이 ‘신앙적 인간’은 담대함, 인내, 사랑, 순종, 해석 능력, 지속성을

통합적으로 갖춘 존재로 형성된다. 이러한 인간상은 경험 중심 EPIC 구조와 ToF 제자양육 과정을 통해 실제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신앙 형성의 구체적 결과라 할 수 있다.

#### 4. 경험 중심 EPIC 모델의 신학적 의미

이와 같이 제안하는 경험 중심 EPIC 피라미드 모델은, EPIC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 모델은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떠한 인간으로 변화되는지를 다시 묻는 신학적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구조는 궁극적으로 ‘신앙적 인간’의 형성을 지향하는 신앙 형성의 통합적 틀로 기능한다.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는 이 구조 안에서 신앙은 단순한 교리 이해나 종교적 참여를 넘어,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삶의 시험과 선택의 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은 지속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신앙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 안에 내면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신앙적 인간’이 형성되는 신학적 토대가 된다.

이 모델은 MZ 세대의 특성에 교회를 맞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신앙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경험 중심으로 재구성된 EPIC은 신앙을 일회적 결단이나 감정적 체험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통합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경험 중심 EPIC 모델은 청년 목회를 특정 세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교회가 언제나 붙들어야 할 신앙 형성의 본질을 다시 드러낸다. 이는

프로그램 중심 목회에서 인간 형성 중심 목회로의 전환을 요청하며, ‘신앙적 인간’의 지속적 형성을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재정립하는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 C. 경험 중심 EPIC 모델이 제시하는 청년 목회의 실제적 제언

앞에서 제안한 경험 중심 EPIC 피라미드 모델은, 청년 목회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모델의 목적은 청년 목회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말하기보다,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경험 중심 EPIC 모델이 오늘의 청년 목회에 어떤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1. ‘설명하는 신앙’에서 ‘경험되는 신앙’으로의 전환

경험 중심 EPIC 모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제언은, 청년 목회가 신앙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많은 청년사역은 여전히 신앙을 잘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설교와 교육은 더 정교해지고, 신학적 설명도 풍부해졌지만, 청년들의 삶 속에서는 신앙이 여전히 먼 이야기로 남는 경우가 많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먼저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보게 해야 할 현실로 제시한다. 특히 MZ 세대 청년들에게 신앙은 충분히 이해된 이후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될 때 비로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청년 목회는 신앙을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기보다,

신앙이 경험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감정적 체험을 강조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와 시험,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은 청년 목회의 출발점을 ‘교회 안의 활동’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 그 자체에 두도록 요청한다.

## 2. 참여를 요구하기보다 참여가 일어나는 구조 만들기

두 번째 제언은 참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다. 청년 목회 현장에서는 종종 참여를 독려하거나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그러나 참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들의 책임감 부족이 아니라, 참여할 이유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에서 참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다.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실체가 될 때, 참여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하나비전교회 사례에서 청년들은 사역에 ‘불려 나왔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더 깊이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년 목회는 참여를 강요하기보다, 참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역할을 나누거나 일을 맡기는 문제를 넘어, 청년들이 신앙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구조를 의미한다. 참여는 동원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의 확장으로 이해될 때 지속 가능해진다.

## 3. 이야기와 상징을 통해 신앙 언어를 회복하기

세 번째 제언은 이미지와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에서 이야기와 상징은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경험을 공동체 안에 축적하는 핵심적인 매개이다. 경험은 기록되고 나누어질 때 공동체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신앙 언어를 형성한다.

오늘의 청년들은 명령이나 교훈보다는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세련된 미디어 콘텐츠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신앙 언어가 된다. ToF 과정에서 기록된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언으로 기능한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은 청년 목회가 더 많은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요청한다. 이야기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으로 초대하는 힘을 갖는다.

#### 4. 관계 유지를 넘어 책임 있는 연결로 나아가기

마지막 제언은 관계와 연결에 관한 것이다. 청년 목회에서 공동체성은 늘 중요한 주제이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험 중심 EPIC 모델에서 연결은 감정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감당하는 책임의 관계를 의미한다.

경험을 통해 신앙이 실체가 되고, 참여와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공동체 안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이때 연결은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공동체는 서로의 삶과 시험을 외면할 수 없는 관계로 묶이게 된다. 이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지 구조가 된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은 청년 목회를 “사람을 붙잡아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재정의한다. 이 연결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 타인의 삶을 향한 책임으로 확장된다.

##### 5. 경험을 중심에 둘 때 청년 목회의 방향은 달라진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이 제시하는 청년 목회의 실제적 제언은,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델은 청년 목회가 무엇을 중심에 둘 때 신앙이 형성되는지를 다시 묻는다. 경험이 중심에 놓일 때, 참여는 강요가 아니라 응답이 되고, 이야기는 장식이 아니라 증언이 되며, 연결은 관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실재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 중심 EPIC 모델은 MZ 세대를 위한 특별한 해법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신앙 형성의 본질을 드러낸다. 청년 목회는 세대에 맞춘 사역이 아니라, 신앙이 실제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작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 VI. 결론

본 연구는 MZ 세대 청년 목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토대로 실제 청년 목회 현장에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특히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와 Test of Faith (ToF) 제자양육 과정을 중심으로, 청년 목회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있는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목회의 위기를 세대 변화나 참여율 감소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교회가 전제해 온 신앙 형성 구조 자체를 질문하고 재구성하려는 신학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A. 연구 내용의 요약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형성된 MZ 세대의 특징을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를 신앙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 환경속에서 형성된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태도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응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이후 시대 교회가

신앙을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의 방식으로 드러내야 함을 분석하였다. EPIC 모델은 신앙을 설명과 전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삶 속에 형성되는 실제로 이해하도록 돕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4장에서는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례를 통해 EPIC 모델이 실제 사역 현장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사역 가운데 ToF 제자양육이 청년부 사역의 중심 구조로 기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고, 신앙이 삶의 시험과 문제 속에서 경험되고, 참여와 이야기, 공동체적 연결로 확장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기존 EPIC 모델을 경험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경험을 꼭짓점으로 하고 참여, 이미지, 연결이 확장되는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EPIC 모델이 현장에 더 적합한 형태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목회가 세대의 특성에 맞추는 전략이 아니라, 신앙 형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구조를 세우는 작업임을 강조하였다.

## B.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레너드 스윗의 EPIC 모델을 경험 중심 신앙 형성 모델로 재구성하였다. 기존 EPIC 모델이 문화 분석과 실천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경험을 신앙 형성의 출발점으로 재배치함으로써 EPIC을 보다 구조적인 형성 이론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MZ 세대의 인간상을 ‘신앙적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초합리·초개인·초자율로 특징지어지는 청년들의 태도를 신앙에 대한 거부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고, 이를 신앙적 성숙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인간 이해를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Test of Faith (ToF) 제자양육 과정을 경험 중심 EPIC 구조 안에서 분석함으로써, 신앙 형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청년 목회를 프로그램 중심 사역에서 형성 중심 사역으로 전환하는 실천신학적 모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C. 신앙 형성과 Faith-Oriented Human의 형성

본 연구는 경험 중심 EPIC 구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적 인간’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앙이 교회 활동이나 일시적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신앙적 인간’은 경험, 참여, 이야기, 연결의 순환 구조 속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구조는 신앙을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 안에 내면화하도록 이끈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신앙 형성 모델의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다.

### D. 실천신학적·목회적 기여

실천신학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청년 목회를 세대 맞춤형 전략이나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신앙 형성의 구조로 재정립하였다. 경험 중심 EPIC 모델은 삶의 현실과 시험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참여와 이야기, 공동체적

연결을 통해 신앙이 확장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청년 목회뿐 아니라 교회 교육, 제자훈련, 공동체 형성, 평신도 훈련 전반에 적용 가능한 틀로서, 한국 교회가 신앙 형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실천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 E.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본 연구는 하나비전교회라는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모든 교회 현장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자가 현장 내부자라는 점에서 해석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회 맥락에서 경험 중심 EPIC 모델과 ToF 제자양육 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신앙 형성의 지속성과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 F. 종합 결론

본 연구는 MZ 세대 청년 목회의 위기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신앙이 실제로 형성되는 구조를 회복하려는 신학적 탐구이다. 경험 중심 EPIC 모델과 ToF 제자양육 구조는 청년 목회를 특정 세대에 맞춘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언제나 감당해야 할 신앙 형성의 본질로 재정립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신앙적 인간’ 과 경험 중심 신앙 형성 구조는 청년 목회를

넘어, 오늘날 교회가 신앙 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실천신학적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서적

- 곽연선. 『번아웃 세대』. 서울: 스리체어스, 2022.
- 김수연. 『이제 막 복직한 김과장에게』. 서울: 온워드, 2023.
-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파주: 창비, 2022.
- 대학내일20대연구소. 『Z세대 트렌드 2025』. 파주: 위즈덤하우스, 2024.
- 이용규. 『뚝배기를 닮아 뿌링클을 사다』. 서울: 좁쌀한알, 2022.
- 전석재 외. 『2026 한국교회 Z세대 트렌드』. 서울: 다음세대연구소, 2025.
- 이철희.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파주: 위즈덤하우스, 2024.
- 이혜민. 『요즘 것들의 사생활: 먹고사니즘』. 서울: 구백킬로미터, 2021.
- 임홍택. 『2000년생이 온다』. 서울: 십일프로, 2023.
- 전정환. 『밀레니얼의 반격』. 파주: 길벗, 2019.
-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서울: 생각의힘, 2020.
- 허태균. 『어쩌다 한국인』. 서울: 중앙박스, 2015.

### 번역서적

- 스윗, 레너드.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 『테블릿에서 테이블로』 .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5.

### 학술논문

신승범. “기독교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021), 273-307.

이귀연. “청년교회봉사자의 번아웃 경험에 관한 단일사례연구: 기독교 상담적

제안,” 『복음과 상담』 30(1) (2022), 59-89.

이은경, “멀티-빌리버스(multi-believers) 시대의 미닝아웃(Meaning out) - ESG를 통한 신앙역량 강화,” 『신학과 실천』 82 (2022), 877-898.

이민형, “기독교청년의 신앙 : 한국교회의 이미지, 경험, 기대에 대하여,” 『신학과 실천』 88 (2024), 863-888.

### 신문기사

정원희. “청년이 떠나는 교회, 시대 읽고 응답해야.” 『기독교신문』 . 2025년 6월 30일 .

이대웅. “MZ가 말하는 ‘MZ 세대가 교회 떠나는 이유’ .” 『크리스천투데이』 .

2024년 11월21일 .

## 웹사이트

최승연. “MZ 세대가 원하는 건 ‘신앙공동체’ , 교회 참여 허용해야.”

『크리스천데일리』 . 2022년 3월 31일.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12671/20220331/mz%EC%84%B8%EB%8C%80%EA%B0%80-%EC%9B%90%ED%95%98%EB%8A%94-%EA%B1%B4-%EC%8B%A0%EC%95%99%EA%B3%B5%EB%8F%99%EC%B2%B4-%EA%B5%90%ED%9A%8C-%EC%B0%B8%EC%97%AC-%ED%97%88%EC%9A%A9%ED%95%B4%EC%95%BC.htm>

(최종접속 2026 년 2 월 9 일).

침례신문사, “밥상머리 WITH - 식사로 마음 열고 말씀 나누는 공동체,”

『baptistnews』 , 2024 년 6 월 12 일,

<https://www.baptistnews.co.kr/mobile/article.html?no=17745> (최종접속 2026 년 2 월 14 일).

## 연구자료 및 미출판 교재

김지영. 『Test of Faith 1권』 . 미출판 교재. 인천: 하나비전교회, 2021.

김지영. 『Test of Faith 2권』 . 미출판 교재. 인천: 하나비전교회, 2021.

## 부록

본 부록은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룬 Test of Faith (ToF) 제자양육 과정이 실제 사역 현장에서 사용된 교재에 근거한 사역임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ToF 제자양육 교재는 연구자가 하나비전교회 청년부 사역 현장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여 사용해 온 자료로, 두 권의 교재로 구성된 비교적 방대한 과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재 전체를 수록하기보다, 제자양육의 핵심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발췌하였다.

본 부록은 ToF 제자양육을 상세히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문에서 제시한 분석과 해석이 연구자의 실제 사역 경험과 구체적인 양육 구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참고 자료로 제시된다.

### 부록 A. ToF 제자양육의 개념과 출발점

본 절은 Test of Faith (ToF) 제자양육이 신앙 형성을 삶의 ‘시험’이라는 실제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발췌한 내용은 ToF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제자양육임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ToF 제자양육이 경험(Experiential)을 신앙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ToF 제자양육 전체 개요

**들어가는 말**

신앙이 우리 삶의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처음 신앙을 만났던 강렬함을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경험과 체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훈련과정은 기독교 교리의 모든 것을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으로 사는 실제적인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가 될 것입니다.

“왜 신을 찾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은 ‘간절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고 이 ‘시험(Test)’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해주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과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다양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실제적인 한 방법은  
 [ 문제가 해결되는 삶 ]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말하는 것은 ‘예수’라는 답이 있기에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믿음의 시험(Test of Faith)** 이라 제시하며  
 줄여서 토프(ToF) 라 부릅니다.

우리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것입니다.

## 목차

1.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다
  3. 항상 행복할 수 있다
  4. 믿음의 시험 Test of Faith
  5. 쉽게 해석되는 성경
  6.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7. 사랑만하며 사는 삶 (실제 토프사역)
  8. 내 앞에 서계신 주님 (지치고 힘이 없을 때)
  9. 한 영혼
  10. 가장 큰 하나님의 연락
- ※ 믿음의 시험 도전하기

## 2. ‘시험’의 신앙적 재해석(핵심 개념)

2단원

#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다

03

**베드로전서 4장 12-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표류 당한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망망한 바다뿐이었다.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았다. 풍랑만 더 심할 뿐이었다.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3분의 2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어도 구원의 손길은 닿지 않았다. 한 사람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였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전재산.... "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소리쳤다.

"이봐,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가운데 누구를 찾게 될까요? 잘 있다가도 큰일이 생기면, 두 손을 모으게 되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하며 나를 넘어서는 탄

식을 내뱉기도 하며, 영적인 아버지를 자연스레 찾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방패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은유는 다윗이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드러내 줍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두꺼운 신학책에서 읽은 하나님도 아닌, 정말 삶의 현장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은유한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광야와 전쟁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의 경계가 있는 곳,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현장, 그곳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Q.** <출애굽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



---



---



---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세밀하고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아직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내 삶에 가장 선한 방향임을 믿어야 합니다.

**Q.** <사사기> 2장 12절에 이스라엘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나요?

---



---



---



---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백성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시험’은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그래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다.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시험을 통해 주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잘 있다가도 큰일이 생기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안좋은 것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원한다면 시험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명제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다!”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든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연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나에게 찾아온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



---



---



---



---

# 이해하지 못할 시험도 하나님의 연락일까

2단원

04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시험이 하나님의 연락이다.” 라는 말은 참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시험을 통해 주님을 찾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시험은 정말 하나님의 연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런데 정말 큰 시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물어보지요. 그래요 시험이 하나님의 연락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삶에 좋다는 것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정말 큰 시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저에게 자문하는 질문입니다.

‘그래 저 목사는 크게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살았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큰 시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연락이라는 말이 나오겠어? 으유 어려운 일 안 겪어봐서 저런 입에 발린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저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시험이 하나님의 연락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수도 없이 여러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기도를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에도 이 믿음의 공식이 적용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스”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자녀가 큰일을 당했다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거나, 많은 시간 준비해왔던 것이 무너졌거나, 모든 인간관계가 한 순간에 망가졌다는 정말 도저히 인간의 한계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욕해도 속이 분이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 시험도 하나님의 연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Q. 나의 삶이나 지인의 삶 가운데 겪었던 상황 중 큰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



---



---



---



---



---



---



---

##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Q.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



---



---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시험은 넉넉하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은 간단한 시험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시험에서도 기쁘게 여기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달라지게 됩니다. 시험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돈으로 해보려고 하고, 인간관계로 해보려고 하고, 큰 걱정가운데 빠져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반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험도 하나님의 연락임을 고백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다’라는 문장은 고백이다.

Q. <욥기> 3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



---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며, 우리도 만드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설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다.’ 라는 말은 이해가 돼서 할 수 있는 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자가 삶에서 경험을 통해 깨달음으로 한마디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멋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의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승리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주님의 계획안에 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에게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데려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는 분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동부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동부에 어린이가 많아지자, 장애 아동들도 점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두명에서 7~8명까지 많아지자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름다운학교’라는 이름으로 2시간 음악활동, 체육활동 등을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애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더 가까워지고 더 알아가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O이라는 친구가 집에서 고기냄새 사라지도록 켜놓은 향초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함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불이 머리카락에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적어준 병실에 들어 가보니 OO이 아버님이 양손과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발견하시고 급하게 맨손으로 불을 끄시면서 손과 팔에 큰 화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OO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전신에 커다란 화상을 입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며 어려운 상황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OO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데려가실지 몰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운 가운데 사역자로서 헤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만 하던 중 장애아동들의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학교 리더부모님 :** OO이가 하나님 곁으로 간 뒤로 또 한번 흔들리는 저를 느꼈습니다.....하나님은 어디 계신거지?.....그리고.....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살아가기 위해서요.....

**전도사 :** 감사해요.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사역자로서 참 부족함을 느껴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들 들어서 정말 감사해요. 지지시더라도,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저도 계속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힘내세요.

**아름다운학교 리더부모님** : 네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전도사님의 마음을 알기에 다시 아름다운학교도 할수 있었고 , 또 전도사님의 기도와 사랑이 물씬 느껴져서 아름다운학교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지기에 원망도 해보지만 결국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가운데 내가 판단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닿아보니, 시험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고백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다.’ 라는 말은 멋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는 분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험가운데 그냥 지나가면 몰라요 불만과 억울함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따라 기도했더니 시험이 하나님의 연락임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Q.** <시편> 33편 16절에서 왕과 용사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



---



---

왕은 능력이 많습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 수 있습니다. 권위로 무력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사도 능력이 많습니다. 힘이 세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대부분의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군대로도, 힘이 센 능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체’ 이십니다.**

**Q.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적어보며 외워봅시다.**

---



---



---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해결은 주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 죽어도 여한이 없다

## 02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 인생의 목적은 점이 아니라 선이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인생의 목적은 높이 이루어야 할 한 순간의 점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삶에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뿐이라고,  
인생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점이며 이 점들을 이어가는 선이 인생  
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도 있  
겠고, 버겁고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  
든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의미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순간이 아닌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과 더 행복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순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신다.

Q.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한다고 하십니까?

---



---



---



---

이스라엘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생활을 하며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길어지자, 이스라엘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이 광야의 땅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광야의 땅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아침마다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위의 성경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눈여겨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 인생의 목적은 지금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목적의 형태를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한 순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순간과 연관이 있을까요? 삶의 모든 순간이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지 방법을 알아보시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험과 고통의 순간들은 삶에 의미가 되지 않으며 성공의 순간, 놀라운 것을 이룬 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어떻게 모든 순간이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려운 시험의 순간이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의 상황의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단합니다. 무언가 높은 한 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순간들은 두 가지 선택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인지, 내 방법대로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룬 순간입니다. 높은 한 점을 이룬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험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의 성공, 정말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성공 즉,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찾아온 시험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Q.**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



---



---



---

베드로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에게 시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시험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고난 앞에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상황이든, 만족스러운 상황이든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의 순간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연락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 놀라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서 시험은 정말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연락이 아니겠습니까?

### 지금이 가장 잘 살고 있다. 더 바랄 것이 없다.

내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공허했던 삶의 순간들, 허황된 것을 쫓아 순간의 쾌락만을 바라보며 살던 안일함. 눈앞의 많은 고민보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Q. <시편> 84편 10절에 시편기자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



---



---



---



---

시편기자는 이 시편을 쓸 당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랐을 수도 있지만, 시편기자는 인간적인 상황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을 더 원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고백합니다. '주님과 하루가 세상에서의 천 날보다 낫고, 이 땅에서의 좋은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 분외에 어떤 것도 한낱 신기루일 뿐입니다. 눈이 가려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Q. <베드로전서> 4장 18-19절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한다고 말하나요?**

---



---



---



---



---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가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의인도 겨우 한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평안의 반석 가운데 서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연락이 없어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을 행하는 자, 아무리 봐도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 미쁘신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 부록 B. ToF 제자양육의 실천 구조

본 절은 ToF 제자양육이 신앙을 어떻게 실제 삶의 행동과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말씀-기도-기간-기록’ 으로 이어지는 반복 구조는 참여 없이 이해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응답하는 신앙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 발췌를 통해 ToF 제자양육이 EPIC 모델에서 말하는 참여(Participatory)의 요소를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Test of Faith : 문말기기기

4단원

04

이사야 38장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Test of Faith’, ‘토프’ 계속 말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프는 ‘나에게 찾아온 시험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문말기기기’라는 초성으로 외울 수 있어요.

바로 ‘문제, 말씀, 기도, 기간, 기록’을 뜻합니다.

## 1. 문제(Test)

Q.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은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



---



---



---



---



---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토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로 ‘문제(Test)’를 제시합니다.

토프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토프의 시험을 ‘다이어트’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안먹으면 좋은데.. 또 먹어버렸네 실패했다~” 실패와 성공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거셨어요. 하나님의 연락에 사로잡힙니다. 그 절박함, 그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가운데 주님께 간절하며 오랜 시험 말하기 어렵고 안될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이 시험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연락으로 주님께 더 간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문제, 시험(Test)’입니다.

## 2. 말씀(Word)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아는데 우리는 그 중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지요.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 ‘토프’에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시험을 통해 말씀이 열립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sup>18)</sup>

18) 6단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 3. 기도(Pray)

Q.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적어 봅시다.

---



---



---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문자로 적혀진 내용을 넘어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을 넘어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 4. 기간(Period)

‘기간’은 문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임의의 기간을 정합니다. 토프와 큐티가 가장 다른 점입니다. 문제를 놓고 작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간에 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같이 시험가운데 주님 앞에 작정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잠언의 하루**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에스더의 3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  
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  
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

**+요나의 3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1장 17절)

**+여호수아의 7일**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다니엘의 10일**

12.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4.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  
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 12-14절)

**+솔로몬의 14일**

그 때에 솔로몬이 칠 일과 칠 일 도합 십사 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열왕기상 8장 65절)

#### +다니엘의 세 이레(21일)

1.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 10장 1-3절)

#### +예수님의 40일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태복음 40장 1-2절)

### 5. 기록(Record)

Q.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왕과 용사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



---



---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상황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증거로 기다릴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내 삶의 하나하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 기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연락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록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토프의 과정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의 연락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찾고,

넘어서는 능력과 방향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과정을 **'기록'**함으로

나의 삶속에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 **토프** ]라고 합니다.

‘토프’는 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많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가운데 무너지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프’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찾아온 시험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대방을 도와주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문제가 가장 완벽하고 선한 뜻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토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 ‘토프’는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주머니의 만원으로 도와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 시간씩 통화하고 다독여주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하고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읽으며 3일 동안 정말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큰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에게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정말 바라며 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 가장 완벽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삶에 정말 주님의 놀라우심이 임하시도록 바라기에 ‘토프’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 토프사역

7단원

02

##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토프사역이란?

시 험 가운데  
하 나님의 뜻을  
선 택 하도록 돕는 것

‘**토프**’는 시험을 하나님의 연락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며 ‘문제 말씀 기도 기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프사역**’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토프sos를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아파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걱정거리가 아닌데..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인데’ 하는 마음으로 시험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영혼을 보며 사랑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힘들 때 5만원을 쥐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에는 방향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하는지 방향을

모르고, 방향은 알아도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한 희생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은 모두 온전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가장 행복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어야합니다. 어두운 방향에 동참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 완전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소개해주는 것만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그 행복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에서 누리는 잠깐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한 기쁨이 가장 선한 방향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까지 가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한 신에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에 닿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언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에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울어주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가장 선한 방향에 닿을 때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프사역은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되어야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만 닿으면 해결이 되는데, 주위의 시험들을 모른 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시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시험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  
이것을 **사랑만하며 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만하며 살 수 있습니다.

## **토프sos**

‘**토프sos**’는 **삶에 찾아온 시험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토프를 알게 되면 시험을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픈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토프사역의 시작은 두가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토프sos’**로 시험과 고민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토프리더가 먼저 다가가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토프sos가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시험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모르고** 어려워하고 있기에 당사자가 수동적이어도 토프리더가 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토프sos’**로 당사자가 토프팀에게 토프를 요청할 때입니다. 토프를 알고 있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천국과 같은 삶’의 실제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 토프사역이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토프양육이 공동체에 필요하며, 천국과 같은 삶을 이루는 도구로 토프가 소개됩니다.

## **토프사역의 시작**

- ① 첫 만남은 되도록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토프사역을 시작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만나게되면, 정해진 토프사역의 틀을 넘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 ② 첫 만남 때 토프sos를 들고 ‘문제, 말씀, 기도, 기간, 기록’을 함께 정합니다.

### **예) [ 000청년 토프 시작 ]**

\*토프sos(문제) : 학기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가운데(특히 시험기간)  
 주일만이 아닌 주중에도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회복 하는 것

## \*토프방법 :

(말씀) 저녁10시에 마태복음 5장 ~ 25장 매일 1장씩 큐티와 묵상

(기도) 기도하기(30분), 매일 ccm한곡 이상 듣기

(기간) 4/7-4/25 다가오는 중간고사에도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 토프 기간을  
중간고사 끝나는 날까지로 정함.

(기록) 말씀에 대해 은혜 받은 것 있다면 밴드 올리기

## ③ 토프 말씀을 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말씀은 복음으로 연결되어 어느 성경을 읽어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영적상황에 좀 더 적합한 성경 한 권으로 정한다면 더욱 와닿는 주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좀 더 적합하다 느껴지는 성경 3권을 리더가 선정해 간 후 각 권의 1장을 함께 읽고 주님께서 더 마음을 주시는 성경으로 선정한다.
- 토프리더가 평소에 읽었던 은혜 받은 성경으로 선정해도 좋다.
- 토프sos를 요청한 상대방이 읽고 싶은 성경으로 선정해도 좋다.
- 목사님, 속장님 등 주위의 추천을 통해 성경을 선정해도 좋다.
- 토프양육 5단원(쉽게 해석되는 성경)을 참고.

## ④ 토프 기간을 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영적상황에 좀 더 적합한 기간을 정한다면 더욱 와닿는 주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 토프양육 4단원 4과(믿음의 시험 Test fo Faith - 문말기기기)를 참고.

## ⑤ 토프팀 경건생활 기록의 세부사항/

토프 중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토프기간 중 받은 주님의 마음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프팀으로 토프를 진행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시험은 민감한 요소가 많습니다. 정말 해결하기 원했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 모든 것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 또는 토프sos 에 있어서 본인 판단 기준으로

**1. 공개할 수 있는 문제 2. 리더에게만 나눌 문제 3. 혼자 알아야 할 문제**를

나눠서 “1. 공개할 수 있는 문제”만 팀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눔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합니다.

- 토프sos를 당사자의 동의하에 문제를 공개하고 함께 중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없거나, 나누기 어려운 문제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토프사역의 마무리

토프기간이 끝나면 토프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험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입니다.

① 토프기간동안 시험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정리합니다.

② 토프를 하면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봅니다.

-토프양육 6단원(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참고합니다.

-분별이 어려울 때는 목회자에게 요청해도 좋습니다.

③ 시험을 통해 연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마무리합니다.

① 토프기간동안 시험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정리합니다.

예) 토프응답정리/

**마태복음 22:37,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시험과 함께 토프도 끝이 났네요..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막막했었고, 결심이 일주일도 못가는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더라도 나중에 가면 형식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매일 제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했으며, 감사를 하게 되더라구요!

사실 저에게 시험기간은 항상 힘든 기간입니다. 저의 모든 중심은 시험으로 향하고 있던 것을 느낀 때가 여러번 입니다. 심지어 주일마저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면서 억지로 교회를 나갔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기간에 토프를 진행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오직 예수' !!!!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믿음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는데, 계속 저에게 믿음을 시험하게 하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은 6장 30~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의 우선순위는 계속 공부에 맞춰져 있었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 하는 믿음이 약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공부를 더 하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묵상하는 마태복음에서는 꾸준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대학교회 수요일예배에서 정말 '오직 예수'뿐이면 행복한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정말 많은 찔림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평소 중간고사 기간처럼 시간에 쫓겨 교회

만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비전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을 주셨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모든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 모든것을 맡기자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번 시험기간은 정말 내 힘이 아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하지만, 아주 강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깨지고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느낍니다!

② 토프를 하면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봅니다.

예) 토프응답 분별확인/

**1. 마태복음 8장 22절 [시험보다 예수님을 바라봄]**

내 삶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명확한 주님의 음성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 시험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과 유혹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는 요청도 짐이 되며 형식적이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라는 것이 아닌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연락입니다.

〇〇청년이 매일 주시는 말씀이 명확하다는 고백은 시험이 변하여 하나님의 연락이 된 것이고, 바쁜 시험중 그 명확한 음성이 '노력'과 '승리'같은 것이 아닌 '믿음'과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확실한 응답입니다.

### 부록 C. 기록과 나눔을 통한 신앙의 확장

본 절은 ToF 제자양육에서 개인의 신앙 경험이 기록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 안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ToF는 개인의 시험을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기록을 통해 신앙의 언어로 정리하게 하며, 이를 공동체와 나누도록 이끈다. 이러한 과정은 신앙이 이야기와 이미지(Image-driven)를 통해 전달되고, 공동체적 연결(Connected) 속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구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 기록으로 남는 하나님의 역사

7단원

04

## 요한계시록 1장 2-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안보이시니까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놀릴 때 어떻게 놀리나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에이 어딴어” 이렇게 말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해도 믿지 못합니다.

##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Q. <시편> 8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



---



---

시편 8편의 저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프’ 문제가 해결되는 삶.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Q. <마태복음> 6장 10절을 적어봅시다.**

---



---



---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노예에서 해방되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와 엘리아선 지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토프사역'입니다.**

1단원부터 보게 되면 우리 상황가운데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 남자, 여자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상황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토프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 이라고 말합니다.**

**Q.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적어봅시다.**

---



---



---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기만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평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거야” 하고 말하면 “에이 말도 안돼” 하다

가 그 뜻이 이루어져버리면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말씀대로 한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합심하여 “주님 이루어주세요!” 구하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지요.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을 넘어서고 등등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며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입니다.**

**Q. <마태복음> 18장 21-22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



---



---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 물으며 ‘7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며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용서도 한두번이지 7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용서’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으로 치부했던

기적들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Q.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적어봅시다.**

---



---



---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말씀에 기록된 것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낱알이 기록되면 이 세상에 책으로 다 두기에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 토프를 통해서 우리 삶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한 사건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토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실제로 남게 되는 것이 토프의 5가지 과정 중 하나인 '기록'입니다.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랑만하며 사는 삶에서 기록으로 남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 기록되는 것이 토프사역중 아주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야합니다.

우리의 기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확신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토프란?

# 05

##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토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토프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프’는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혹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토프’ 방법을 알고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도깨비방망이 같이, 물을 떠놓고 빌 듯이 그런 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주시는 것이 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실제적인 주님의 역사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토프’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토프’는 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많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프’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찾아온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대방을 도와주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문제가 가장 완벽하고 선한 뜻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토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 ‘토프’는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주머니의 만원으로 도와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한 시간씩 통화하고 다독여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하고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읽으며 3일 동안 정말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큰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에게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정말 바라며 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 가장 완벽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삶에 정말 주님의 놀라우심이 임하시도록 바라기에 ‘토프’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토프’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가장 완벽하게 도와주며 모른척하지 않고, 그 삶의 어려움에 함께해주는 것, 그 시험 가운데 도와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행동이 ‘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토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이 믿음을 체득하게 하고 이 놀라운 실재가 10번 넘게 경험해보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토프를 하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전처럼 알기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서 하실거야’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자!’라는 확신 가운데 시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문제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제약 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일을 이루려하시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록 D. ToF 제자양육 실습정리

본 절은 ToF 제자양육의 간증문을 통해, 앞선 발췌 내용들이 하나의 신앙 형성 과정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특히 10주 양육과 이후 실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본 논문 5장에서 제안한 경험 중심 EPIC 피라미드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부록은 ToF 제자양육이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의 역할을 한다.

### 3. 토프결과 및 간증문 작성 예시

#### [ 예시1 ]

##### 가. 토프sos :

밀린 학업으로 인해 우선순위도 밀리고 있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아졌고 피곤해지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 멀어져있는 주님과 관계 회복. 육체적, 정신적 피로함을 넘어서서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 (중간고사 기간 포함)

나. 토프방법 : 등하교길에 요한복음1장씩 묵상, 저녁9시 기도 및 묵상

##### 다. 토프를 하고 받은 은혜 및 응답

토프를 하면서 항상 놀라웠던 것은 여러 시험에 놓였을 때 얼마나 나에게 딱 맞는 성경 구절을 내게 선물해주시는지 알게되었을 때 주님을 보는 흐릿하던 나의 시선에서 더욱 더 경외하는 시선으로 쳐다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약 한달 가량 안되는 기간동안 내가 시험기간에 놓여있을 때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했던 토프였는데,  
그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중간고사 시험주간에 저를 가장 강력하게 깨어있게 해주셨습니다.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2-14)

시험기간 중 많은 말씀들을 제게 가르쳐주셨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붙어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학기마다 나오는 교내 장학금이 크게 필요한지라 시험기간에 나름대로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해왔고 이번도 열심히 기도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성적(학점)이라는게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상대평가라는 잣대 아래에서 챙길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소이더라고요.

저는 시험기간이면 고박 학교에서 밤을 새서 선배들에게 이것저것 팁도 많이 얻어 항상 시험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물론 저는 토프를 하기 전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알려주셨던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내 희생의 대가로 얻어간 것인 줄 알았습니다 ㅎㅎ,,

또한 친한 동기들은 제가 시험기간 때마다 시험문제 보따리인 것을 잘 압니다 :) 그래서 시험 때가 다가오면 제게 질문하는 빈도 수가 많아지지요.

친한 친구들까지는 괜찮다만 ,, 저를 심적으로 가장 크게 힘들게 하던 것은 인사조차 하지 않는 관계의 친구들도 시험 기간 때만 되면 아무렇지 않은듯 제게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나의 희생의 대가로만 알았던 제게는 알려주지 너무 아깝고 친하지도 않은데 시험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썩 달갑지 않았고 알려주자니 너무 속 좁아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알려주면서도 결국엔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현실으로는 저와 장학금을 두고 경쟁하는 경쟁자들에게 보폭을 줄여주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일주일동안 밤을 새가며 몸은 지쳐가고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까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응답해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 서론이 정말 길었네요 !!!!

위 말씀을 보면 현재의 저에게 정말로 피가되고 살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하는 것만한 사랑이 또 없고, 그리하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찌 단비같지 않은 말씀이겠습니까 :)

주님께서 학교에 있던 제게 친히 찾아와 직접 말씀해주시니 마음이 한껏 가벼워졌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나서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 이 말씀은 주님이 수요일에 보여주셔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혼자 이득을 취하고 싶었고 취했습니다 ,,^^;)

그렇게 흥분하게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나서 시험을 본 후 강의실을 나올 때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게 사소한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분이 이런 느낌일까?’ 하는 감정조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의 결과가 이전보다 더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한 번의 학자금대출을 더 받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이전의 방법은 이기심을 못 억누른 마귀의 방식이고, 현재의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

물론 다른 토프팀원분들께서 보실 때(특히 현재 대학 재학생분들)에는 ‘학점이 뭐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거야 !’ 하실 수 있겠고, 저 역시도 학점이란 문제 하나로 이렇게 길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ㅋㅋㅋ ㅋ!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학점에 대한 응답이 은혜가 아닌 분명한 주님의 응답을 텍스트로 표현하려다 보니 조금 필요 이상으로 장황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 토프를 하지 않았다면 졸업할 때까지 불편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을 겁니다. 어쩌면 대학과정을 넘어서까지 그럴 지 모르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니 오히려 마음의 근심은 가고 이전에는 시험기간에 심신이 다 지쳤다면 이번 수목금요일에는 마음만큼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그래도 몸은 여전히 힘들고 졸리고 감기까지 걸렸네요 ㅠ)

오로지 말씀을 통해 제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게 해주신 주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 예시2 ]

### 가. 토프sos :

1. 성경학교 집회와 기도회를 온전히 성령 임재 가운데 진행할 수 있기를, 주님 뜻대로 성경학교 하시길. ->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온전히 마칠 수 있기를
2.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졸업결혼사역시험 가운데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나. 토프방법 : 매일 로마서 1장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밴드에 올리기

### 다. 토프응답정리 :

성경학교와 함께 토프가 끝이 났습니다. 성경학교에 연관된 기도제목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의 토프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집회와 기도회가 없어지면서 토프 기도제목도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토프를 계속하게 되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경학교 반응도 좋았고, 아이들도 기쁘게 참여했다는 점에서 성경

학교는 온전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경학교 기도제목을 정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주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마칠 수 있도록이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무난하게’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새벽5시까지 편집점을 점검해야 했었고, 주일 성경학교 당일에도 급하게 수정하고 다시 올리는 등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당일뿐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동안에도 코로나 2차가 터지면서 현장예배계획을 전면취소 하는 등 역대급 변수가 있었던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제목 가운데에 주님 뜻대로 성경학교 “하시길”을 넣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진행되며 불이 잘 지퍼진 것에 감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도제목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응답받는다든 게 무슨 뜻이 될지 모르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보다는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로마서 묵상 중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한숨으로 간구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묵상은 내 두 번째 기도제목과 놀랍게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학교 기도제목이 살면서 일어나는 결과로서 응답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참으로 응답받기에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 기도제목은 로마서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주로 받은 느낌은 ‘정죄’가 가장 강했습니다.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나는 많이 다른 사람이며,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 적다 생각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런 저를 꾸짖고 있었고(1-3장), 내가 설교와 성서원 것을 줄줄이 월 뿐 일상에서는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 주님에게 맡기며 많은 중요한 일들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정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안 것들을 어떻게 실행해나가는지에 따라 제 인생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기도제목에 대해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주신 응답 같습니다.

**라. 1~10단원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단원은 몇 단원입니까?**

양육 가운데 교육목사님의 이상주의(가장 좋은 길)가 많이 드러났던 점이 일단 좋았습니다. 이런 경지가 있구나 싶습니다. 주님과 바실레이아(하나님나라)에 대해 이 땅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시험이 하나님의 연락이라는 것에 관한 단원이 가장 인상깊습니다.

**마. 제자훈련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집에서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식을 합니다.

**바. ‘믿음의 시험’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지만 말이 쉽지 그렇게 안되는 거 잘 압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사실 내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연락이니깐요.

저는 볼테르 신학의 칸디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최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겐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시험은 옵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어쨌든 올 시험 앞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그게 이번 토프의 결단입니다.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Ji-Young Kim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August 25, 1987

Parent`s Names: Goanho Kim and Hyeonsuk Hwang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Onyang High School</b> 1411 Oncheon-daero, Asan-si, Chungcheongnam-do ,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6, 2006
egiate: <b>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b>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Th.	Feb 14, 2012
Graduate: <b>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b>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M.	Feb 18, 201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Ji-Young Kim

Name typed

February 20, 2026

date